

연구보고 19-R16-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Ⅱ: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책임연구원 조아미

공동연구원 임정아 김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책임연구원_ 조아미(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공동연구원_ 임정아(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수료)

연구보조원_ 김남은(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박사과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1. 협동연구 총서 시리즈

협동연구 총서 일련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기관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명지대학교

2. 참여연구진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진
주관 연구 기관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	장근영 선임연구위원 (총괄책임자)	서고운 (부연구위원)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이동훈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예슬 (연구사업운영원)
협력 연구 기관	명지대학교	조아미 교수	임정아 (명지대학교) 김남은 (명지대학교)

국문초록

본 연구는 2018년도에 수행된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기초조사의 2차 년도 후속연구로서 1차 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소도시에 적절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모색하고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중소도시는 경제적 요건, 인프라의 질적·양적 수준, 지역과의 연계정도가 다양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모델 역시 도시 마다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어떠한 자원과 기회가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지원체계를 파악한 후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성공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지역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가통계자료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지역적 특성과 학교 밖 청소년에 현황을 파악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의 진행계획을 수립하고 3개의 연구대상 중소도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을 심층면접 하였고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근무하는 실무자도 심층면접 하였다.

심층면접 내용으로는 지역·기관·유관기관 현황, 이용 청소년의 특성, 기관 서비스의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기관 성공모델과 성공요인,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정도·지자체의 정책의지·지원하는사업,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 연계기관의 사업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연계과정,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 사후관리·지속의향·
애로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다.

심층면접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
모델 개발 방향은 아홉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둘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셋째, 모든 청소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여섯째, 예산 확보. 일곱째,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여덟째,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아홉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 중소
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세 가지 제시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다. 두 번째 유형은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이다.

연구요약

1. 연구목적

- 본 연구는 2018년 1차 년도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기초조사 시행 후 자원과 인프라가 대도시와 읍면지역의 중간 정도인 중소도시¹⁾(‘나’형 센터)²⁾를 대상으로 어떠한 자원과 기회가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체계를 파악하고자 함
- 중소도시라도 경제적 요건, 다양한 인프라의 질적·양적 차이, 지역과의 연계 정도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살펴보고 지역사회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활용 연계할지에 대한 성공적인 지원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 문헌조사
 - 지역특성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국가통계자료, 기타 문헌을 통해 수집

1) 중소도시 : 규모가 중간 이하의 작은 도시를 말하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인구를 통해 도시규모를 정의한다. 인구기준은 최소인구 5만에서 최대인구 30만명에서 100만명까지로 다양하다(국토환경정보센터에서 발췌).

2)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문회의 결과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급은 ‘가’, ‘나’, ‘다’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형 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규모와 인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였다. 2019년 ‘나’형 센터 유형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88개이다.

- 심층면접

- 선정된 3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면접 조사 진행

- 전문가 자문

- 본 연구와 관련된 적합한 지역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진행

3. 주요결과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면접 결과

- 기관 현황

- 기관 현황을 조직, 공간, 예산, 임금의 범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조직 부분에서는 기존 여성가족부 지침 외에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가 되어있다. 공간 현황은 타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활동 시 어려움이 있다. 예산부분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였다. 임금은 타 기관(상담복지센터)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 편이었다.

-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 기관별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은 우선 세 기관 모두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이 높았다.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의 넓은 편이지만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했으며 교통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지역은 청소년이 선택하는 취업관련 전문기술 학원이 부족하다.

● 기관 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마다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공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은 경제적 빈곤과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의 증가가 나타났고 도농지역의 경우 심리적 우울을 이야기 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 기관별 서비스 운영은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이외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기관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

- 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을 이야기 하고 있다.

● 기관 성공모델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형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로 나타낼 수 있다. 첫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셋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이다.

● 기관 성공요인

- 기관의 성공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무자들의 근무조건 안정화로 인하여 이직률도 줄고 이로 인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과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기관의 대표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하였다.

●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 기관마다 지자체와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또한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사업 등에 대한 관심으로 예산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 지자체 지원 사업

-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세 기관 공통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였다. 기관별 지자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진로 작업장 예산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중앙정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필요,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을 이야기 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광역자치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 지원이다. 교육비와 자립비는 광역자치단체나 도 관할 입장에서 가장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기초자치단체)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많은 진로체험이 가능한 진로작업장 확장과,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시에도 학력취득 인정,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 내의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 실무자 심층면접 결과

● 기관의 사업유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유형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문화센터)과 지자체와 연관되어 사업을 하는 기관(사회적 기업, 요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연계과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는 인턴십 훈련과정이 있다. 연계과정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관으로 찾아온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알게 된 경우였다.

● 학교 밖 청소년 연계경로, 연령대, 욕구, 특성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7~22세의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특성이 보이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과 매사에 무기력함을 보이는 특성도 나타난다.

●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해에 2~3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 사업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인계받은 후 기관방침에 따라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기관 서비스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성과는 지역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과 인턴십 훈련 후 기관에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사업은 꾸준히 하고 싶어 했다.

● 기관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역 특성 상 다양한 직무

체협의 어려움, 교통 편의시설 부족, 직장 내 예절교육, 인턴십 훈련 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중앙정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 필요 이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기초자치단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직접적 연결과 더불어 지역의 민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하고 있는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의 사례 및 업무협조 그리고 지역과 지역과의 관련기관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4. 정책제언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 모든 청소년 연령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 예산 확보
-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

●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 자립형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연구보고 19-R16-1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계획	5
3. 연구 추진체계	8
II. 이론적 배경	9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11
2. 지역사회 특성	17

Ⅲ. 연구방법	31
1. 연구 참여자	33
2. 심층 면접 질문내용	34
3. 자료 수집 및 분석	36
Ⅳ. 연구결과	37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39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79
V. 결론	99
1. 요약	101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107
3.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113
참고문헌	119
부록	123
1.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26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종사자)	127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130

표 목차

표 I - 1	2차 년도 연구계획	6
표 I - 2	2차 년도 심층면접조사 개요	7
표 II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기준	12
표 II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현황	13
표 II - 3	시·도 센터 사업내용	15
표 II - 4	시·군·구 센터 사업내용	16
표 II - 5	○○시 청소년 인구규모	18
표 II - 6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19
표 II - 7	○○시 학업 중단율	20
표 II - 8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1
표 II - 9	△△시 청소년 인구규모	22
표 II - 10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23
표 II - 11	△△시 학업 중단율	24
표 II - 12	△△시 청소년 시설 현황	25
표 II - 13	□□시 청소년 인구규모	27
표 II - 14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28
표 II - 15	□□시 학업 중단율	29
표 II - 16	□□시 청소년 시설 현황	30
표 III - 1	연구 참여자 현황	34
표 III - 2	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35
표 III -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35
표 IV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심층 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39
표 IV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의 심층 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79
표 V - 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116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계획	6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8
그림 II-1	가형 센터 현황	13
그림 II-2	나형 센터 현황	14
그림 II-3	다형 센터 현황	14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116

○———— I .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계획
- 3. 연구 추진체계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 밖 청소년의 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수치를 보고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청소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이미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수가 누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다양한 성장배경과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많은 수의 학교 밖 청소년이 가정의 기능적 결손이나 구조적 결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조은주, 2014). 이것은 우리 사회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2014년에 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작되었다. 동 법률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2018)에서도 나타나듯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치에 따라 각 센터가 가지고 있는 물적 및 인적 자원이 다르고 각 지역의 청소년의 욕구도 다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이용인원은 지역과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월 상시 30명 정도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수가 중소도시나 읍면지역보다 대도시에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이들의 발굴과 기관이용률에 대한 제고가 필요한 반면, 중소도시나 읍면지역의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이보다 센터로의 접근성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조아미 외, 2018).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5년의 연구를 통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1차 년도에서는 지역사회 기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학교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지역자원 특성,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의 애로사항, 성공사례 등을 분석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탐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차 년도의 연구목적은 2-4차년 도에 수행될 연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연구결과, 지역사회 유형에 따라 공통점도 있지만 각기 다른 욕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사회 기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이 지역사회 유형에 따라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1차 년도 연구의 경우,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별로 지역사회 기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탐색 기회는 제공되었지만, 각 지역사회 유형별로 1개 기관만을 연구하여 심층적인 파악의 기회를 가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 기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과 관련하여 전체적인 윤곽은 잡을 수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사회 유형별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5개년 연구 중 2차 년도에 해당하는 연구로 지역사회 중 중소도시 기반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대부분의 정책연구처럼 중소도시의 지역특성과 현장 종사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바람직한 지원모델을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도시 중에서 성공적으로 학교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곳을 선정하여 그곳의 지원체계를 조사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학교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발굴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3개소를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선정하여 각 기관의 기관장과 실무자, 연계기관의 실무자의 면접을 통해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자원모델의 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연구계획

1) 5개년 연구계획

1차 년도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후 2차 년도 연구는 중소도시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전체 5개년 연구계획 수립 초기에는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의 순서로 지역사회 지원모델을 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문회의에서 대도시 지역에 비해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환경과 지역자원 등이 많이 부족하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모델이 우선적으로 나온 후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지역 선정을 위한 1차 자문회의내용을 반영하여 대도시·중소도시·읍면지역 중 중간층으로 자리하고 있는 중소도시를 2차 년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 ‘나’, ‘다’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나’형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들은 중소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인구수와 지역여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2차 년도 중소도시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형 센터를 기준으로 하여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5개년 연구계획은 다음의 [그림 1-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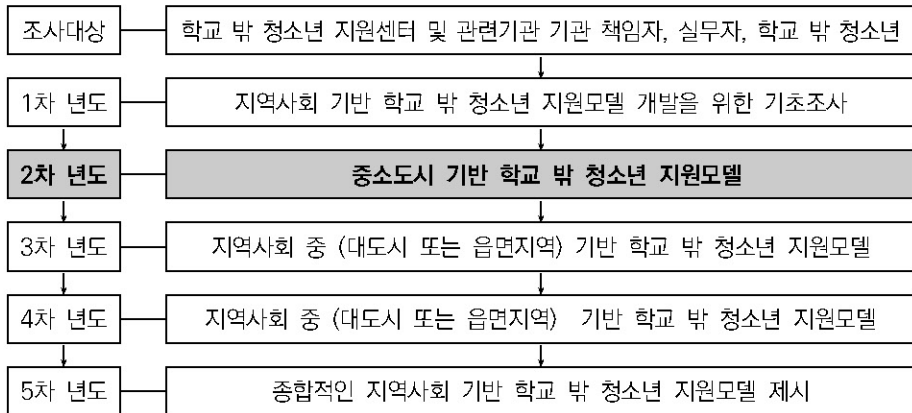


그림 1-1 연구계획

2) 2차 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

2차 년도 연구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2차 년도 연구계획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연구방법
지역특성	중소도시의 지역 3군데를 선정하여, 지역배경, 자원분포(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관, 인력자원) 등	문헌연구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및 현황 파악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지원 내용 파악. 지역별 자원의 질적, 양적 차이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지원 체계 파악, 지역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	실무진 면접조사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특성과 욕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과 욕구, 지원상의 애로사항 등	실무진 면접조사

연구내용	세부 연구내용	연구방법
지역별 성공모델 조사	지역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성공요인을 파악하여, 지원체계의 성공모델을 발굴	실무진 면접조사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모델 제시	지역사회가 이용 및 운영할 수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의 모델을 제시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방향 제시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실무자들과의 면접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1-2 2차년도 심층면접조사 개요

구분		내용
면담 대상 섭외 과정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 실시 3개 지역선정 관련기관 등의 추천을 통해 피면담자 섭외 6월~7월에 걸쳐 면접조사 실시 면접 실시 전 면담·녹음·전사에 관한 본인의 서면 동의
대상특성 및 개요	기관 실무자	총 8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관련기관 실무자
면담 방식 및 시간	기관 실무자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반구조화된 질문지 이용 참여자 FGI 혹은 참여자별 심층면접 참여자별 1시간 30분 ~ 2시간 / 총 1 ~ 2회 면담실시
면담 자료 기록	기관 실무자	녹취 및 전사
조사 분석	기관 실무자	연구진
주요 면담 내용	기관 실무자	지역별 특성과 한계, 필요, 발전방향, 지원상의 애로사항 등을 분석
		지역규모별 당면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 등을 분석
		지역별 지원체계의 성공요인 파악 후 성공모델 발굴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의 추진체계는 다음의 [그림 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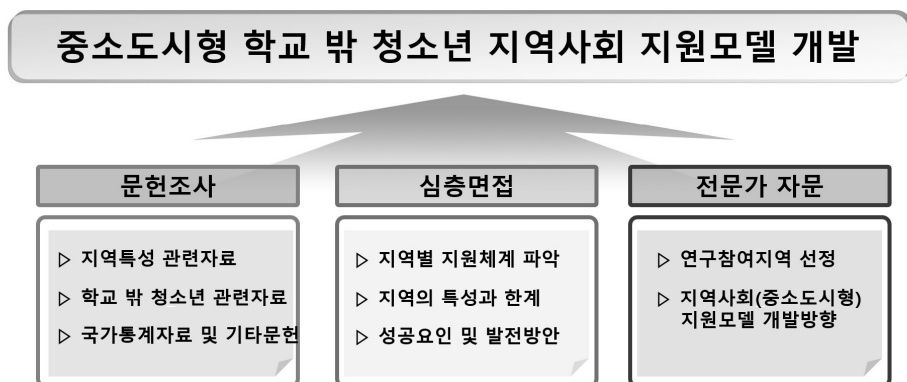


그림 I-2 연구추진체계

○ — II. 이론적 배경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 2. 지역사회 특성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현황

1) 운영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둔다(여성가족부, 2019).

2) 지원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학업 중단숙려대상 청소년도 포함한다(여성가족부, 2019).

3) 설치·지정 위치

센터의 입지는 청소년이 방문이 용이하도록 교통수단이 갖추어져있고 청소년의 건강 유지 및 재해 방지가능한 곳이어야 하며, 일조·채광·환기 등이 원활하여야 한다(여성가족부, 2019).

4) 설치·지정 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기준은 다음의 [표 II-1]과 같다.

표 II-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기준

구분		세부기준
인력		- 5명 이상(시·도 센터) - 2명 이상(시·군·구 센터) (가형: 4명 이상, 나형: 3명 이상, 다형: 2명 이상)
면적		- 150m ² 이상
시설 공간	사무실	- 사무 공간
	상담실	- 초기면접, 진로상담, 심리검사 등
	교육실 및 활동실	- 교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 마련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	- 상담대기실과 휴게실의 공동사용 가능
기타	위치	-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위치
	설비	- 냉난방설비, 취사설비, 위생설비, 학업·직업관련 전시물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19)

5) 설치·지정 센터 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현황은 다음의 [표 II-2]와 같다.

표 II-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지정 현황

구분	소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총계	213	26	16	9	9	6	3	5	1	31	11	13	16	10	19	15	20	3
시·도 센터	16	1	1	1	1	1	1	1	-	1	1	1	1	1	1	1	1	1
시·군·구 센터	197	25	15	8	8	5	2	4	1	30	10	12	15	9	18	14	19	2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급별 현황³⁾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분류기준은 시·도 센터를 제외한 시·군·구 센터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수요와 청소년 인구에 기반 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등급별 현황은 가형이 13곳, 나형이 88곳, 다형이 96곳으로 가형이 가장 적었고 다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형 센터 현황을 보면 경기 지역이 8곳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 광주, 경북, 전북이 각각 1곳씩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형 센터의 현황은 다음의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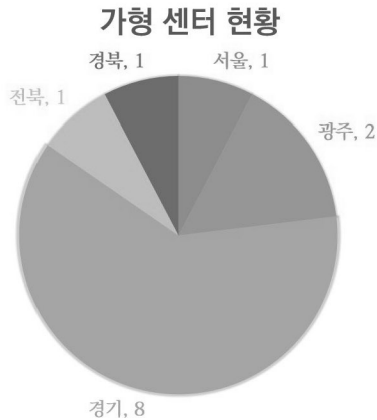


그림 II-1 가형 센터 현황

3)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여성가족부에 요청하여 받은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급별 명단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등급 구분은 지자체 수요와 청소년 인구에 기반하여 분류되었다.

나형 센터 현황을 보면 서울 지역이 19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나형 센터의 현황은 다음의 [그림 II-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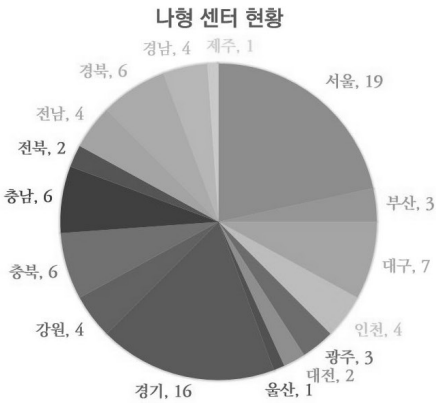


그림 II-2 나형 센터 현황

다형 센터 현황을 보면 경남 지역이 15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많은 지역은 경기 지역이 16곳으로 가장 많았다.

다형 센터의 현황은 다음의 [그림 II-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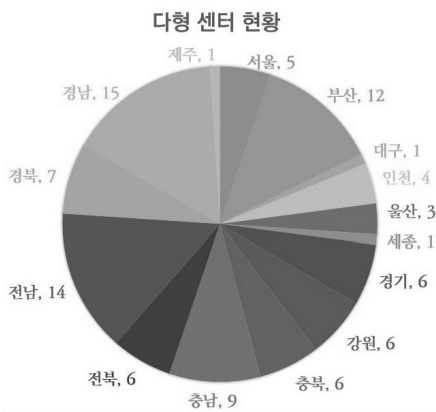


그림 II-3 다형 센터 현황

6) 지원 사업

(1) 시·도 센터

시·도 센터는 시·군·구 센터의 관리·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설치되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광역지자체 특성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허브기능을 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시·도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II-3]과 같다.

표 II-3 시·도 센터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시·군·구 센터 역량 강화	- 시·군·구 센터 종사자 교육 실시 - 시·군·구 센터 컨설팅 - 지역 내 민간자원 개발·연계 - 시·도 단위 정책 수요 분석 및 특성화프로그램 개발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성공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광역 연계기능 수행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참여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여성가족부, 중앙지원기관 공지사항 전달 및 지역의견 수렴 - 꿈드림 멘토단, 꿈드림 청소년단 모집, 교육, 회의 등 구성·운영 지원 - 시·도 단위 연합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 안내를 위한 홍보실시

* 출처 : 여성가족부(2019)

(1) 시·군·구 센터

시·군·구 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내 학교 밖 청소년 발굴과 상담·교육·직업체험 및 취업·자립 등 지원을 목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9).

시·군·구 센터의 사업내용은 다음의 [표 II-4]와 같다.

표 II-4 시·군·구 센터 사업내용

구분	사업내용
상담 지원	- 학교 밖 청소년과 그 가족 또는 보호자를 대상으로 대면상담, 전화 상담,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상담 지원 실시 - 지역 내 연락두절, 서비스 거부 등의 사유로 미지원된 청소년은 청소년 동반자와 협력하여 방문 상담 지원
교육 지원	- 학업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학업동기 강화 및 학업능력 증진 프로그램 제공 - 검정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 기존학교, 대안학교, 상급학교 등 학교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절차 안내 - 대학입시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 훈련 지원	- 직업적성 발견을 위한 직업탐색 프로그램, 직업체험 프로그램 제공 - 내일이름학교 지원 - 직업훈련, 자격취득을 위한 훈련기관 연계 지원
자립지원	- 청소년 근로 권익 등 보호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 체육, 봉사활동 등 자기계발 프로그램 지원 - 법질서 의식, 의사소통 능력향상, 경제원리 이해 등 기초소양 교육 제공

*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 지역사회⁴⁾ 특성

1) 경기도 ○○시

(1) 지역의 특성

경기도 ○○시는 총 면적 430.99km²로 경기도 중남부에 위치하고 있다. 면적의 68.6%가 임야이다. 산지가 많은 지역으로 경지가 17.2%, 도로용지가 2.8%, 대지가 2.3%, 공장용지가 1.1%로 구성되어있다. ○○시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경기도와 강원도를 잇는 경간선이 있으며 버스터미널이 있지만 지역규모에 비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은 편으로 지역 내 이동이 편리하지 않다.

이 지역의 최근 특성으로는 2018년도부터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인구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신축 아파트와 같이 신축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점진적으로 도시화가 되어가는 중이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만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고 나머지 지역들은 도농지역이거나 공장지역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 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거나 부모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청소년들은 서울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지만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원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시가 넓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어있지 않다보니 지역 내에서는 청소년들이 이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345,947명이며, ○○시의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49,370명에서 2017년은 53,915명(총 인구수의 15.6%)으로 지난 4년간 약 4천명의 청소년이 증가하였지만 구성비는 감소하는

4) 1차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중소도시 중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의논한 결과, 경기도의 ○○시, △△시, 충청북도의 □□시 세 지역의 학교 밖 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20세-24세 청소년의 수는 늘었으나 구성비는 비슷하였고, 10-14세, 15-19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5]과 같다.

표 II-5 ○○시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년도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구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총 인구수	286,699	100	298,858	100	312,579	100	327,723	100	345,947	100
10-14세	15,596	5.4	15,409	5.2	14,952	4.8	14,882	4.5	15,564	4.5
15-19세	17,261	6.0	17,473	5.8	17,806	5.7	17,921	5.5	18,011	5.2
20-24세	16,513	5.8	17,742	5.9	18,950	6.1	19,799	6.0	20,340	5.9
청소년 인구수	49,370	17.2	50,624	16.9	51,708	16.6	52,602	16	53,915	15.6

* 출처: ○○시 인구통계(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79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40개교이며, 중학교 수는 23개교이며, 고등학교 수는 16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71,615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25,140명이며, 중학교 학생 수는 12,817명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15,184명이다.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는 906.5명이며, 초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628.5명, 중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557.3명, 고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949.0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 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현저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적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의 학생 수 및 학교 수는 다음 [표 II-6]과 같다.

표 II-6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단위 : 학생 수(명), 학교 수(개교))

연도	2017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구분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시	71,615	79	906.5	25,140	40	628.5	12,817	23	557.3	15,184	16	949.0
전국	5,725,260	11,613	493.0	2,674,227	6,040	442.8	1,381,334	3,213	429.9	1,669,699	2,360	707.5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11.19.) 인출

- * 주 : 1) 분교는 합산하지 않았음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학교 수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수를 합산하였음
 4) 고등학교 수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수를 합산하였음

○○시의 학업 중단율은 2016년 전체 0.67%에서 2017년 0.57%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2018년 0.79%로 학업 중단율이 다시 높아졌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8년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64%, 중학생 0.57%, 고등학생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감소한데 비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0.46%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업 중단율이 많이 높아졌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I-7]과 같다.

표 II-7 ○○시 학업 중단율

(단위 : 학생 수(명), 학업중단자(명), 학업 중단율(%))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36,753	291	0.79	18,814	120	0.64	7,841	45	0.57	6,825	126	1.85
2017	35,607	204	0.57	17,608	52	0.30	7,589	52	0.69	7,372	100	1.36
2016	35,215	235	0.67	17,042	83	0.49	7,501	47	0.63	7,571	105	1.39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08.01.) 인출

- *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몸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시의 청소년(10~24세)은 53,915명(○○시 전체 인구의 15.6%)이다. 이들을 위한 ○○시의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수련관 1개소, 청소년 야영장 2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개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각 1개소, 미인가를 포함한 4개의 대안학교가 있다.

청소년 시설은 많지 않아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열악한 상황이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를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은 1개가 있으나 이곳은 복합문화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어 온전한 청소년의 이용시설이 아닌 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이용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반면, 학교 밖 청소년 시설로는 꿈드림센터 1개소, 대안학교 4개소를 가지고 있어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지 않은 편에 속한다.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8]와 같다.

표 II-8 ○○시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개소))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3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	
	청소년 아영장	2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	-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1	5
	대안학교	4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 카페	-	-
	청소년 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9

2) 경기도 △△시

(1) 지역의 특성

경기도의 △△시는 경기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서울, 인천, 부천과 가까워 수도권의 주거, 공업 분담도시이다. 총 면적 134.56km²으로 행정동 17개와 법정동 30개로 구성되어 있다. △△시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고 있으며 인천의 송도와 수원 사이를 잇는 협궤철도인 수인선이 지나가고 있다. 제 2경인고속도로, 시화·안산 간 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고 있다.

△△시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지나고 있어 서울과 가까운 이점이 있으나 이것은 일부 4호선이 지나는 지역에만 해당된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이 지나지 않은 곳은 버스를 이용해 이동을 해야 하는데 차로는 20분만에 이동하는 거리를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해야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정으로 청소년들은 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적은 편이고 거주하고 있는 시의 청소년 시설이 있어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왕복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이나 걸린다. 따라서 거주하는 시의 시설을 이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시의 시설이나 서울로 이동하여 이용하는 것이 나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419,664명이며,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85,648명(총 인구수의 약 21.6%)이며, 2017년은 80,870명(총 인구수의 약 19.2%)으로 지난 4년간 약 5천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구성비 또한 2.4%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20-24세 청소년 인구수와 구성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14세, 15-19세 청소년 인구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9]와 같다.

표 II-9 △△시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인구수(명), 구성비(%))

년도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구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총 인구수	396,765	100.0	394,639	100.0	398,256	100	402,888	100	419,664	100
10-14세	26,164	6.6	24,395	6.2	22,426	5.6	21,492	5.3	21,922	5.2
15-19세	31,077	7.8	30,185	7.6	29,645	7.4	28,648	7.1	27,479	6.5
20-24세	28,407	7.2	29,556	7.5	30,547	7.7	30,872	7.7	31,469	7.5
청소년 인구수	85,648	21.6	84,136	21.3	82,618	20.7	81,012	20.1	80,870	19.2

* 출처: △△시 인구통계(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44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26개교이며, 중학교 수는 11개교이며, 고등학교 수는 7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44,961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17,608명이며, 중학교 학생 수는 7,589명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7,372명이다.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는 1021.8명이며, 초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677.2명, 중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689.9명, 고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1053.1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약 2배가량 많은 수치를 보였으며, 본 연구의 연구지역으로 선정된 3지역 중 학생 수 대비 학교 수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학생 수 및 학교 수는 다음 [표 II-10]과 같다.

표 II-10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단위: 학생 수(명), 학교 수(개교))

연도	2017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44,961	44	1021.8	17,608	26	677.2	7,589	11	689.9	7,372	7	1053.1
전국	5,725,260	11,613	493.0	2,674,227	6,040	442.8	1,381,334	3,213	429.9	1,669,699	2,360	707.5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 : //kess.kedi.re.kr/index](http://kess.kedi.re.kr/index) (2019.11.19.) 인출

- * 주 : 1) 분교는 합산하지 않았음
-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 3) 학교 수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수를 합산하였음
- 4) 고등학교 수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수를 합산하였음

△△시의 학업 중단율은 2016년 전체 0.44%에서 2017년 0.45%로 큰 변화는 없었다. 2018년에는 0.49%로 전년도 대비 0.04%가 늘어나 학업 중단율이 2016년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8년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35%, 중학생 0.25%, 고등학생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대폭 감소한데 비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시도 ○○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학업 중단율이 0.42% 증가하여 다른 학교급에 비해 학업 중단율이 많이 높아졌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I-11]과 같다.

표 II-11 △△시 학업 중단율

(단위 : 학생 수(명), 학업중단자(명), 학업 중단율(%))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60,241	294	0.49	27,185	95	0.35	12,949	33	0.25	14,286	166	1.16
2017	58,602	266	0.45	25,140	73	0.29	12,817	56	0.44	15,184	137	0.90
2016	59,278	261	0.44	24,816	75	0.30	13,479	70	0.52	15,710	116	0.74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11.19.) 인출

- *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무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시의 청소년(10-24세)은 85,648명(△△시 전체 인구의 21.6%)이다. 이들을 위한 △△시의 청소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 남자단기청소년 쉼터가 1개소, 여자 단기청소년쉼터가 1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각각 1개소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동일한 장소에서 있어서 온전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마땅히 있을 곳이 없다. 학교 밖 청소년시설로는 꿈드림센터

1개소, 대안학교 1개소를 가지고 있어 청소년인구수가 유사한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에 속한다.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12]과 같다.

표 II-12 △△시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개소))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2
	청소년 수련원	-	
	청소년 문화의 집	1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	
	청소년 아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2	2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1	2
	대안학교	1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	-
	청소년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7

3) 충청북도 □□시

(1) 지역의 특성

충청북도의 □□시는 충청북도의 중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은 천안시, 서쪽은 세종특별자치시, 동쪽은 괴산군, 남쪽은 대전광역시에 접해있다. 총 면적 940.31km²으로 4개의 구, 3개의 읍, 30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개의 행정동, 82개의 법정동이 있다. □□시 지역의 진·출입 대중교통수단으로는 충북선, 경부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수서고속철도가 모두 지나며 국제공항이 위치해있다.

□□시는 유명한 소비도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많이 있으며 그에 따라 공단도 많이 들어와 있다. 또한 군단위의 두 지역을 통합하여 인구수와 지역 규모가 많이 늘었으며 광역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 하지만 넓은 지역과 인구수에 비해 청소년들이 이용할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교통은 시내 권은 시내버스가 많아서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군단위로 이동할 수 있는 교통편은 많지가 않아서 군단위에서는 시내 권에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청소년 시설 중 군단위 청소년을 위해서 셔틀을 운영하는 시설이 있지만 많지 않으며 시에서 셔틀 운영비를 지원해야 운영할 수 있는 실정이다.

2017년 12월 기준 □□시의 총 인구수는 835,590명이다. 청소년 인구(10-24세)는 2013년 169,701명(총 인구수의 약 20.5%)이며, 2017년은 155,993명(총 인구수의 약 18.7%)으로 지난 4년간 약 14,000명의 청소년 인구감소를 보이고 구성비 또한 감소하였다. 2013년에 비해 2017년의 경우, 19-24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10-14세, 15세-19세 청소년의 수와 구성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시의 청소년 인구규모는 다음의 [표 II-13]과 같다.

표 II-13 □□시 청소년 인구규모

(단위 : 인구수(명), 구성비(%))

연도	2013. 12.		2014. 12.		2015. 12.		2016. 12.		2017. 12.	
구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인구수	구성비
총 인구수	827,906	100	831,521	100.0	831,912	100.0	835,197	100.0	835,590	100.0
10-14세	50,761	6.1	48,098	5.8	44,144	5.3	42,239	5.1	42,087	5.0
15-19세	61,243	7.4	59,792	7.2	58,301	7.0	55,769	6.7	52,392	6.3
20-24세	57,697	7.0	59,789	7.2	61,555	7.4	61,910	7.4	61,514	7.4
청소년 인구수	169,701	20.5	167,679	20.2	164,000	19.7	159,918	19.2	155,993	18.7

* 출처 : □□시 인구통계(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2017년 기준 □□시의 전체 학교 수는 172개교이며, 초등학교 수는 89개교이며, 중학교 수는 46개교이며, 고등학교 수는 37개교이다. □□시의 전체 학생 수는 141,352명이며, 초등학교 학생 수는 49,407명이며, 중학교 학생 수는 25,310명이며, 고등학교 학생 수는 30,768명이다.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는 821.8명이며, 초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555.1명, 중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550.2명, 고등학교 1개교 당 학생 수는 831.6명이다. 전국의 1개교 당 학생 수에 비해서 □□시의 1개교 당 학생 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의 학교 수가 학생 수 대비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시의 학생 수 및 학교 수는 다음의 [표 II-14]와 같다.

표 II-14 □□시 학생 수 및 학교 수

(단위 : 학생 수(명), 학교 수(개교))

연도	2017											
구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시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학생 수	학교 수	1개교 당 학생 수
	141,352	172	821.8	49,407	89	555.1	25,310	46	550.2	30,768	37	831.6
전국	5,725,260	11,613	493.0	2,674,227	6,040	442.8	1,381,334	3,213	429.9	1,669,699	2,360	707.5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11.19.) 인출

- * 주 : 1) 분교는 합산하지 않았음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학교 수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사립학교 수를 합산하였음
 4) 고등학교 수는 일반고, 특목고, 특성학교, 자율고 수를 합산하였음

□□시의 학업 중단율은 2016년 전체 0.56%에서 2017년 0.66%로 소폭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0.59%로 학업 중단율이 다시 낮아졌다. 이를 학교급별로 보면 2018년 초등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0.35%, 중학생 0.51%, 고등학생 1.31%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에 비해 중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감소한데 비해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은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중학교의 학업중단 감소율과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증가율은 큰 차이가 없다. 단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증감율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 학업 중단율은 다음의 [표 II-15]과 같다.

표 II-15 □□시 학업 중단율

(단위 : 학생 수(명), 학업중단자(명), 학업 중단율(%))

연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학생 수	학업 중단자	학업 중단율
2018	113,511	674	0.59	49,823	176	0.35	24,373	125	0.51	28,528	373	1.31
2017	116,931	766	0.66	49,407	166	0.34	25,310	147	0.58	30,768	453	1.47
2016	119,971	668	0.56	49,338	148	0.30	26,689	138	0.52	32,388	382	1.18

*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11.19.) 인출

- * 주 : 1) 학업 중단율(%) = 학업 중단자수 / 학생 수
 2) 구분의 연도는 학년도임
 3)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유예 및 면제자를 학업중단자로 봄
 4)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사유는 자퇴(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출국, 기타), 퇴학(무행), 유예, 면제, 제적임
 5) 학업 중단자에 사망자는 포함되지 않음

2017년을 기준으로 볼 때 □□시의 청소년(10~24세)은 155,993명(□□시 전체의 18.7%)이다. 이들을 위한 □□시의 청소년 시설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 수련관이 1개소, 청소년 수련원이 1개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1개소가 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가 1개소, 청소년 쉼터가 3개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개소, 학교 밖 청소년센터가 2개소가 있으며, 미인가를 포함한 대안학교가 7개소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가 일반 상가 건물 7층에 위치해 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아니면 쉽게 찾기 힘들며, 공간이 넉넉하지 못하여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거나 운영을 하더라도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시설로는 꿈드림센터 2개소, 대안학교 7개소가 있지만 청소년 인구수를 감안할 때 타지역에 비해 유사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시의 청소년 시설 현황은 다음의 [표 II-16]과 같다.

표 II-16 □□시 청소년 시설 현황

(단위: 시설 수(개소))

종류	시설 기관	시설 수	합계
수련시설	청소년 수련관	1	4
	청소년 수련원	1	
	청소년 문화의 집	1	
	청소년 특화시설(진로체험)	1	
	청소년 아영장	-	
	청소년 유스호스텔	-	
보호 및 복지시설	청소년 쉼터	3	3
	청소년 자립 지원센터	-	
	청소년 치료 재활센터	-	
	청소년 복지관	-	
상담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2
학교 밖 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센터(꿈드림)	2	9
	대안학교	7	
	징검다리 거점공간	-	
기타 시설	청소년카페	-	-
	청소년 회관	-	
청소년 시설의 현황 수			18

○ — III. 연구방법

- 1. 연구 참여자
- 2. 심층 면접 질문내용
- 3. 자료 수집 및 분석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를 위한 참여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형 센터 종사자와 ‘나’형 센터가 속해있는 지역의 관련기관 종사자이다. 2018년 1차년도 지역사회 기반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 개발 기초조사 연구에서 5개년 연구계획 수립 시 대도시를 우선으로 하여 지원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를 위한 1차 자문회의에서 대도시 지역은 보편적으로 여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보여지니 중소도시의 지원모델 개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였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가’, ‘나’, ‘다’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나’형 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의 규모와 인구를 살펴보면 중소도시에 속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나’형 센터 종사자들과 관련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 종사자로 기관장 1명, 실무자 7명(학교 밖 청소년 기관 실무자 3명, 연계기관 실무자 4명)이다. 연구 참여자로서 청소년을 제외한 이유는 질적 패널 조사에서 청소년들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이다.

참여자는 전문가 회의에서 선정된 3개 지역 학교 밖 청소년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목적을 밝히고 동의를 받은 후 반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였고 면접에 참여한 참여자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의 [표 Ⅲ-1]과 같다.

표 Ⅲ-1 연구 참여자 현황

구분	코드	성별	나이	근무기간	비고
기관책임자	기관장 1	여	44	4년	기관책임자
학교 밖 청소년 기관	실무자 1	여	49	3년	팀장
	실무자 2	여	51	9년	팀장
	실무자 3	남	40	9년	팀장
학교 밖 청소년 연계기관	실무자 4	남	51	8년	시설관리공단
	실무자 5	남	28	3년	사회적 기업
	실무자 6	남	38	8년	문화스포츠센터
	실무자 7	남	31	3년	노인요양원

2. 심층 면접 질문내용

심층 면접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팀의 합의를 거친 것으로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의 감수를 받은 후 인터뷰에 사용되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 기관 실무자별 심층 면접 질문의 항목과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 Ⅲ-2], [표 Ⅲ-3]과 같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부록으로 첨부하였다.

표 III-2 학교 밖 지원센터 종사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 영역	세부내용
기관, 지역, 유관기관 현황	조직현황, 공간현황, 예산확보방법, 임금현황
	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지역의 환경적 특징
	청소년 관련기관, 지역특성에 따른 한계점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	현재등록인원, 실제이용인원, 이용인원의 연령대, 학업중단시기, 유입경로, 이용청소년 특성, 이용청소년 욕구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서비스 유형, 서비스 지원방법
	가장 필요한 지원, 서비스 제공 시 애로사항
기관 성공모델 및 성공요인	성공모델
	성공모델 요인
지자체 네트워크, 정책의지, 지원 사업	지자체와 지역 네트워크 결성, 지자체의 정책의지 및 관심
	지자체 지원 사업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	지원체계의 발전 방향, 추후 정책 및 지원 방향

표 III-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심층 면접 주요 내용

조사영역	세부내용
기관의 사업 유형,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 학교 밖 청소년 연계과정	기관 주요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사업, 꿈드림과의 연계과정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연령 및 성별, 욕구(관심분야), 청소년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	서비스 유형, 이용인원, 꿈드림 연계 사업, 서비스 제공 방법, 이용 청소년 사후관리
	사업 성과, 사업 지속 의향
	지역적 한계점, 개선점 및 애로사항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가장 필요한 네트워크, 가장 필요한 지원, 지원체계 발전방향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이루어졌고, 연구원들이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면접과 FGI를 진행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은 사전에 제작된 반구조화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모든 면접내용은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음 후 전사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질적 연구의 기초적인 해석방법에 근거한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녹음 또는 필사된 원자료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면담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경험의 본질을 나타내는 부분을 찾아내어 주요 영역과 핵심 개념을 도출한 후, 이를 함축된 용어로 바꾸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후에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원자료에 대한 지속적으로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의 복합적 요구에 부합하는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나형 센터 종사자와 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 실시하였다. 심층 면접 분석결과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표 IV-1]과 같은 내용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표 IV-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의 심층 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내용	범주	하위범주
현황	기관 현황	· 실무진의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
		· 타 기관과 공용공간사용
		·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
		· 타 기관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 맞추기
현황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 높음
		·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 지역 규모에 비해 청소년시설 부족

내용	범주	하위범주
현황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 지역 규모에 비해 교통 편의시설 부족
		· 도농지역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원의 부족
청소년 특성	기관 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 실제 이용인원의 꾸준한 참여
		· 친구의 소개로 기관방문
		· 경제적 빈곤 및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증가
		· 심리적 우울
		· 검정고시 욕구가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모두 운영 ·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 확보
	기관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	·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필요
		·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필요
		·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필요
		· 작업 공간 확보가 어려움
		·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기반확립 방향 및 성공 요인	기관 성공모델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기관 성공요인	· 실무자의 근무조건 안정화
		·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
		·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
		·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 결성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지자체 지원 사업	· 진로 작업장 예산 지원
		·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중앙정부	· 실무자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 고위험군 상담 전문 인력 확보
		·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

내용	범주	하위범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광역자치단체	•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비 지원
	기초자치단체	• 진로작업장 확장
		•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필요
	교육청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력취득을 위한 협조
		•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의 학교 내 운영 협조
		• 학업중단숙려자 리스트의 빠른 전달 필요
		•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 변화

1) 현황

(1) 기관현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현황을 조직, 공간, 예산, 임금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 부분에서는 기존 여가부 지침 외에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가 되어있다. 둘째, 공간현황은 타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활동 시 어려움이 있다. 셋째, 예산부분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였다. 넷째, 임금은 타기관(상담복지센터)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 편이었다.

① 실무진의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중앙부처에서 정해놓은 나형 센터의 근무인원 기준으로는 기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어렵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꾸준한 업무처리가 가능한 실무진들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지자체에서 충원 받고 있다고 하였다.

곰드림 인력이 4명인데 그것만으로는 사업이 어렵죠. 도에서 지원해주는 인력이 2명이예요. 제(인터뷰 참여자)는 또 다른 시에서 지원하는 인력으로 되어 있구요. 소장님은 상담복지센터와 겸임이긴 하지만 총 8명이 근무인원이지요. 저희는 모두 정규 개념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3년이 넘어간 직원들도 계속 머무를 수 있게끔 조치해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실무자1)

저희는 근속년수가 모두 오래 되었어요. 저희끼리는 무기계약직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단기간에 서비스가 행해지면 안되잖아요. 1, 2년 가지고는 안되요.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도 장기근속이 필요해요. 도에서 지원하는 인력과 상담복지센터 인력 등이 함께 움직이니 가능한 것도 있어요. 나형센터 기준의 인원으로는 운영이 힘들걸요?(실무자2)

제가 학교 밖 지원센터와 상담복지센터 팀장을 겸직으로 하고 있어요. 급여는 상담복지센터에서 받구요. 그러면서 곰드림 실무자를 한명 더 총원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총괄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운영 학교 밖 지원센터 실무자가 하는 편이죠. 물론 저도 예전에는 학교 밖 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직접 했었구요.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이거든요. 그나마 이렇게라도 총원하니 실무를 좀 더 나눠서 할 수 있었구요. 저희는 다 2년 이상 되신 분들이에요.(실무자3)

② 타 기관과 공용 공간 사용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독립적인 활동 공간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대부분 수련관이나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었다. 타 기관과 함께 공간을 사용하다보니 시간적인 제한과 더불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공간 활용을 하지 못해 아쉽다고 하였다.

여기는 수련관 건물이에요. 여기는 수련관, 시설관리공단, 그리고 저희가 같이 들어와 있어요. 사무실 공간도 그냥 보시기엔 저희 공간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 밖은 상담복지센터랑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실무자1)

주소보고 찾아오셔서 아시겠지만 수련관 건물이에요. 층은 달리하고 있지만.. 상담복지센터와는 다른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수련관 아이들과 한 공간에서 움직이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수련관은 지역문화사업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색해하는 부분도 있어요.(실무자2)

저희는 건물 한 층을 임대료를 내고 있어요. 기존에는 저희가 임대료를 내고 있다가 올해부터는 시에서 내 주세요. 하지만 저희만 쓰는 건물도 아니고 청소년 복합건물도 아니라서 활동 공간이 별로 없어요.(실무자3)

③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중앙부처의 예산이 인건비 지출만으로도 부족하다고 하였다. 그 결과, 기관마다 중앙부처의 예산 외에 지자체 지원, 사업공모 등으로 부족한 예산을 보완하고 있었다.

저희는 행정에서부터 예산이 많아요. 여가부도 사업예산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시비가 보충이 되요. 시비로 인건비도 보충이 되구요. 시비가 여가부에서 주는 비용보다 많아요. 도 예산도 받잖아요. 도 예산도 부족해서 시비를 또 충원을 해주세요. 사업비로. 시비에서 나오는 사업비가 가장 많구요. 저는 또 이쪽 인력이 아니라 새로 발굴 체계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으로 들어온 형태예요. 어쨌든 시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 해줘요.(실무자1)

저희가 창업진흥원의 비즈콜이라고 해서 그쪽에 공모를 하기도 하고요. 민간이지만 초록우산 재단 이런 곳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따기도 했구요. 그 다음에 도에서 진행하는 직업역량 프로젝트,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같은 인턴십 프로그램들도 운영하기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지역참여 예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공모사업도 초반에 시비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보되지 못한 시기에 공모 사업들을 많이 했었죠.(기관장1)

비율로 따지면 국비는 7대3 중에 3이고 지방비랑 구비가 7이라 지방비가 제일 높네요. 수익사업이랑 후원금은 따로 없어요. 장학금은 그냥 자원연계 정도로 생각하고 후원금도 있구요.(실무자2)

저희가 니군이예요. 수익사업을 못하니까 자체수익은 없죠. 법인은 후원이 가능해요. 법인에서 후원을 받으면 기관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법인 자체에서...(중략)... 지자체에서 주는 비용도 일부 있고, 지자체에서도 공모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립기금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거기에 공모를 해서 받아 놓은 게 어마무시했죠.(실무자3)

④ 타기관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 맞추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대체로 상담복지센터 내에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업무도 비슷한데 급여조건이 차이가 난다면 업무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인터뷰한 기관의 종사자들은 이런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해 지자체 등에 많은 협조를 구하고 기관 내에서도 급여조건을 동일하게 맞추었다고 하였다.

저희 쪽 임금현황은 상담복지센터 쪽과 동일하고요. 여가부 비율은 91~92프로 정도 되고 지자체에서 임금표가 따로 있어요. 시에서 모든 청소년시설들을 다 묶어버렸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임금테이블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둘의 안보이는 벽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는 안될 것 같아서 임금테이블을 동일하게 갖췄고 하는 역할도 섞었어요. 사업에 대한 영역들도 그래서 나눈 거예요.(실무자1)

임금은 거의 상담쪽과 맞췄어요.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오기까지 거의 5년이 걸렸네요. 급여가 다르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알아요? 같은 조건에 센터장님이 하나인 위탁단체를 뽑아놓고선 팀이라든 팀이잖아요. 어쩔 급여수준을 그렇게...(중략)... 이렇게 저희처럼 맞춘 곳은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중략)... 저희가 협조를 받은 거는 센터장님이라든 저희랑 좀 노력한 거는 직원들 실무자들의 급여수준 안정화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인건비를 조금 보조받고 있어요.(실무자2)

다른 곳은 상담복지센터와 임금기준이 다를걸요? 근데 저희는 같아요. 지금 학교 밖으로 나오는 예산에서 급여가 있잖아요. 그걸로 3명의 급여를 주기에는 부족해요. 상담복지센터랑 호봉은 맞춰줘야 하니까 그 부족분을 법인에서 주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직원들 이직이 별로 없어요. 직원들이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실무자3)

(2)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기관별 지역현황 및 유관기관 현황은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우선 세 기관 모두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이 높았다. 둘째,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의 증가이다.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지역이 넓은 편인데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했으며 넷째, 교통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농지역은 청소년이 선망하는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원이 부족하다.

①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 높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거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인구비율이 높다고 하였다. 두 기관은 매년 300명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한 기관은 타 기관의 두 배 정도 인원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2017년 기준으로 294명이 발생했어요. 저희는 대부분 250명에서 300명 사이의 아이들이 매년 발생해요. 저희는 이 지역 모든 구역을 관할하고 있어요.(실무자1)

저희는 2018년 2월 기준으로 291명이예요. 타 기관에 비해서 발생비율이 높긴 해요. (실무자2)

도에선 제일 높죠. 도 전체 발생수의 절반정도 되요. 저희 도에는 시가 세 개예요. 세 개 도시 중 학교 밖 청소년의 절반이 저희 시에 있으니까. 제일 큰 도시라 그럴 수도 있어요. 청소년 수도 제일 많고요. 지금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가 18년 4월 자료를 아마 올 초에 올렸나 그럴 거예요. 제가 최근 봤던 걸로는 700명 정도, 도가 1,5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그니까 절반가량이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요.(실무자3)

②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 증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두 기관은 공업지구 인근에 위치해 있거나 도시개발로 인해 도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로 인해 인구유입이 늘어나고 이와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 수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은 계속 신도시들이 많이 생겨서 청소년 유입인구가 많이 늘어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밖 청소년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기관장1)

예전에는 저희가 농어촌 형태였는데 지금은 도시로 재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파트 단지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많아지고 있어요. 공단지역은 아직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 외에는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실무자1)

2017년도에는 약간 줄었는데 2018년도에는 아파트가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인구수가 많아졌어요. 점점 도시화 되어가면서 인구도 늘고 그에 따른 발생인원수가 점점 높아진다고 보죠.(실무자2)

저희가 근처에 대기업 공장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직업 때문에 이주하는 경우가 많지요. 딱히 농촌지역이라고 부를 순 없고 그렇다고 공단지역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공업 소비도시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사람들이 많으니 소비도시가 되는 거겠죠. 더구나 이번에 근처 도시랑 통합이 되면서 저희시의 인구수는 더 늘어 난거죠.(실무자3)

③ 지역 규모에 비해 청소년시설 부족

지역규모에 비해 학교 밖 청소년 시설이 부족하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청소년이 많이 몰리고 있다. 또한 모든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청소년 시설이 있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변의 차별 섞인 시선들로 인하여 일반시설을 사용하기 꺼려한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주 기능을 하는 곳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인데 그마저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학교 밖 청소년은 일반시설에 가기 꺼려하죠. 교복을 입지도 않았고, 스스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시선이 따갑나 봐요.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해서는 학교 밖 센터가 주 기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시에는 대안학교도 없어요. 중도입국 같은 경우에만 희망학교라고 해서 희망센터가 하나 있는데... 여하튼 청소년 시설이 많은 부족하긴 해요.(실무자1)

일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상담복지센터, 수련관,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은 오로지 여기만 이용을 해요.(실무자2)

이번에 통합이 되면서 엄청 큰 도시가 됐어요. 인구수도 83만정도 되고요. 거의 이제 광역수준으로 가고 있죠. 저희 시에 구가 4개구가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시설은 두 개 구에 하나씩 있어요. 지역에 비해서 기관은 없어요...(중략)... 수련관은 청소년이니깐 당연히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잘 안 가려고 하죠. 여기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실무자3)

④ 지역 규모에 비해 교통 편의시설 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넓은 지역에 비해 교통편의 시설의 부족함을 지역의 한계점으로 이야기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의 꾸준한 관리를 위해서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 1시간~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기관을 찾아오는 것은 청소년들에겐 어려운 일인 것이다.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올 수 있는데 오기가 너무 힘든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북쪽에 조금 치우쳐 있어요. 남부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의 노력이 아니면 오기 힘들죠. 아이들이 발걸음 되지만 그런 과정에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지역은 크고 교통은 불편하니 그런 상황이 어려운거죠. 남부에서 저희 센터 오려면 차로는 20분인데 아이들이 버스 타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걸려서 와야 되는 구조예요.(실무자1)

시내권은 시내버스가 많이 움직일 수 있겠지만 군단위로 들어가기까지는 너무 어려워 버스가 많지 않아요. 체계가 군하고 똑같아요. 그곳 아이들을 흡수하기가 조금 어렵죠. 아이들이 찾아 와야 돼요. 버스 편도 자주 있진 않아요. 시내는 5분에 한 대 3분에 한 대 있지만 거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버스 기다리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귀찮아서 안 오죠.(실무자3)

⑤ 도농지역의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원 부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한 기관은 지역특성상 상공업지역의 특성보다 도농지역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도 있다. 이곳은 취업을 위한 전문역량을 기르기 위한 학원 등의 시설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청소년들이 선택하는 직업군의 분포가 거의 없어 인턴십 활동이나 취업연계가 어려운 실정이고 청소년들의 진로목표 설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학원이 많이 부족해요. 취업연계학원이나 그런 게 별로 없어서. 미용학원도 하나 정도 있는데 우리아이들이 가는 낮 시간에는 닫아두고 저녁시간에만 연다든지 해서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예요. 이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이런 게 없는 건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밖으로 빠진다고보다는 숨어있죠.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거나 도시적인 그런 걸 느끼고 싶어 하는 아이들은 서울이나 대도시로 나가고 거기까지 나갈 힘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서만 있는 거예요.(실무자3)

2) 청소년의 특성

(1) 기관 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기관마다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셋째, 경제적 빈곤 및 위기 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증가가 나타났다. 넷째, 심리적 우울 경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공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은 경제적 빈곤과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의 증가 도농 지역의 경우 심리적 우울을 이야기 하였다.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① 실제 이용인원의 꾸준한 참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은 대체로 기관의 프로그램에 꾸준하게 참여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무자들의 꾸준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연령대는 거의 17~19세가 제일 많죠. 20~21세도 있어요. 이 아이들은 못 떠나는 거예요. 고등학교 1~2학년 때 와서 이렇게 잔류하는 애들이 많죠.(실무자2)

저희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쓰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관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실무자2)

저희는 한번 참여한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편이에요. 아이들의 재미거리를 많이 찾아서 함께 하려고 해요. 그냥 나와서 쉬는 것도 좋으니 일단 기관에서 먹고 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꾸준히 참여해요...(중략)...여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로 봤을 때 저희는 지속적으로 오는 아이들이 2~30명이 되니깐. 하루 평균 2~30명이 되고 그리고 거기서 뭐 2~3일에 한 번씩 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일주일에 한번 오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 따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실무자3)

② 친구의 소개로 기관방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아오는 청소년들은 친구의 소개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였다. 교육청에서 받는 학업중단숙려제 리스트는 기관에 넘어오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한다.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바로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서너 달이 지나서 넘어오는 경우가 많다보니 아이들이 유실될 확률이 크다고 하였다.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오거나 친구가 친구를 연결해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중략)...점점 비중이 찾아오는 아이들이 늘고 있어요. 홍보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그 비중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예요.(실무자1)

숙려제로 오는 친구들은 인원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는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이 200명 조금 넘었어요. 이 중에서 학업중단숙려제로 오는 친구는 한 30명 정도밖에 안와요. 저희는 손에 손잡고 많이 오는 편이에요. 저희도 몰랐는데 컨설팅을 해요. 꿈드림에서 1년에 한번씩. 근데 이게 전산 수치로 연계해서 기록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는 친구 손잡고 오는 편이 제일 많더라고요.(실무자2)

저희는 애들이 애들 몰고 와요. 애들이 애들 데리고 오고, 그리고 페이스북, 교육청 리스트는 말 그대로 그냥 신규 등록에 필요한 인원들이에요. 전화하면 없는 번호 라던가, "관심 없어요.

지금 생각해 보고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지금 저 뭐 하니까 그만두세요. 아예 안 할 거예요.” 관심 있으면 “그래요. 가볼게요.” 몇몇이 그래요. 교육청에서 연계된다고 다 오진 않아요. 진짜 극소수만 와요.(실무자3)

③ 경제적 빈곤 및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행동 증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지역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세 기관 중 한 지역은 인근에 공업지구가 있는 공업도시이다. 이 지역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위기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비행행동이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생업을 찾으려고 하는 아이들이 저희 시에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실무자1)

저희가 **공단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조자체가 넓은 구조라서 대도시가 인접해있고 공단 쪽은 굉장히 열악해요. 이쪽에 원룸단지들이 많아서 예전부터 위기청소년 Cys-net을 해보면 위기 청소년들이 우리지역으로 넘어와서 보증금도 없이 살 수 있는 곳에 많이 몰리더라구요. 20살 아이가 그냥 싸인만 하면 월세내고 살 수 있는 구조여서 그렇게 위기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원룸에서 아이들이 아이도 낳고 살다가 폭력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아마 학교 밖 청소년들도 패밀리처럼 있는 아이들이 그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남녀 같이 지내는 아이들이 있어요.(기관장1)

④ 심리적 우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머지 두 기관은 도농지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도농지역의 경우는 대체로 심리적 우울을 겪고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도 특성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요즘은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기 보다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가 더 높다고 하였다.

저희는 비행하는 청소년도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한 1/3 정도도 안 되는 것 같고, 우울감, 또래관계, 정신병리 이런 애들이 많아요.(실무자2)

아이들이 되게 우울이나 이런 것들이 좀 높죠. 그걸로 인해서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그런 걸로 이제 왕따 당하고 그러면서 괴롭힘이나 이런 걸로 학교를 그만 친구도 있고. 그게 좀 많이 있다고 보여 지고요.(실무자3)

⑤ 검정고시 욕구가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본인들이 학교를 중단한 것이지 학업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검정고시 합격 후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욕구를 보이기도 한다고 하였다.

일단 1차적으로는 검정고시죠 검정고시로 학력취득.(실무자1)

학적처리가 되는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8개월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1년이 가잖아요. 학업을 중단한 게 아니라 단지 학교를 중단한 건데 바로 검정고시를 볼 수 없고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학업의 자유에 대해서 침해를 받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아이들은 학업이라는 것은 필수적 욕구예요. 사회에서 하나의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첫 번째 욕구인거거든요.(기관장1)

검정고시가 제일 높죠...(중략)...공부를 어릴 때부터 못했기 때문에 안하고 싶은 거지. 공부는 하고 싶어 해요. 보통사람들이 갖는 학업욕구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테이크 하거나 그럴 때 아이들한테 대학갈 기회가 주어지면 갈거냐고 물어보면 간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럴 때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실무자2)

전부 다 검정고시예요. 왜냐면 밖에서 놀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어떻게든 놀 수 있어요. 근데 학원을 다니자니 돈이 들어가고, 돈은 없고. “여기는 공부 가르쳐 준다니까 와서 검정고시 따야겠다. 검정고시 따러왔는데요.” 하고 놀아요. 노는 게 워낙 익숙하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컴퓨터고 뭐고 되게 좋은 거를 여기다 갖다 놔요...(중략)...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보 검색도 하게 되고 다른 것도 하게 되고 또 다른 친구의 옆에서 뭐 하면 그거 같이

하게 되고 인터넷 강의도 듣게 되고 그게 아이들끼리 전파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죠. 강압적으로 공부하라고 하면 안 돼요. 놀 거면 놀라고 하는데 지금 공부하는 애들 있으면 방해하지 말고 놀자고 하죠.(실무자3)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1)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기관별로 나타난 서비스 운영현황은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이외에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둘째,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① 지역 특성과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각 기관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 운영은 지원 분야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요서비스는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립지원, 건강검진, 기타서비스-지역특성과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프로그램 중 공통으로 지원되는 부분 이외에도 지역특색이 묻어나는 특성과 프로그램에 강점을 두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 기관에서는 복지지원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원래 저희 예산 안에서 꾸준히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복지차원으로 이번엔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비용을 책정을 해줬어요. 급식비는 1,300만원 정도 교통비는 8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접지원비라고 해서 저희가 아이들 사례관정을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진로에 고민이 있는 아이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실무자1)

그리고 저희는 캠프 같은 경우도 3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전거 캠프가 있고요. 제주성장여행이라고 해서 자기성장 캠프니깐 수학여행처럼 하는 캠프가 있고요. 그리고 학습캠프라고 해서 교육지원의 하나의 카테고리이지만 검정고시 대비를 위해서 2박3일 산 속으로 들어가서 교육을 하게 되는 캠프가 있어요. 문화 활동과 교육지원을 동시에 진행하기도 해요.(기관장1)

동아리 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있어요. 자체활동도 계속 하계끔 만들어주고 있어요. 저희가 어떤 동아리들이 있다면 봉사동아리, 창업동아리, 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동아리, 카페 동아리 이렇게 해서 4개의 동아리가 있어요. 그 대표단들이 모여서 정기모임을 월 1회 해요. 그래서 그 대표단이 주도해서 모임을 만드는 거예요. 회차 마다, 월마다 그래서 정기모임은 동아리에 속하지 않은 친구들도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한다거나 저희 체육대회를 같이 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또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 1회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실무자1)

저희는 일대일 대면상담을 무조건 하고자 해요. 아이들을 속속들이 다 알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단계별로 해서 자립 동기도 조사해봤는데, 검정고시를 하더라도 취업이 급한 애들이 있어요. 취업우선보다는 그런 애들이 잘 적응하게끔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 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존감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자존감 관련 상담하고, 다음 단계로 노동권리 교육, 실무경제교육 이런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과정에 들어가도록 해요.(실무자2)

저희 센터에서는 직업능력 강화사업을 해요. 원래 직업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파견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바로 파견이에요. 기본적인 교육은 받고요. 실무를 먼저 경험해보고 아니라고 생각되면 나오게끔. 다른 걸 빨리 경험해보고 그럼 관심이 생기면 공부할 거고 그때 진학을 하든지 아니면 취업을 하계끔 하죠. (실무자3)

②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 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 기관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등과 관련하여 지역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립지원 부분에서 진로체험이나, 인턴십, 진로작업장 파견 등은 기관에서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지역과 연계하면 청소년들에게 좀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고 청소년들이 외부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역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다. 문화 활동 역시 기관의 인력과 예산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이 지역연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지역자원을 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안에서 소화할 수 있는 활동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인턴십 프로그램, 자립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원을 연계해서 이뤄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연계기관이 있어요.(실무자1)

저희가 인터십 프로그램을 할 때 활동처가 다양한 편이에요. 예를 들면, 카페도 있지만 약국도 있고, 꽃집도 있고,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턴활동을 하다가 그 쪽에서 괜찮다고 생각하고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있었어요. (기관장1)

문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랑 관련된 연계지원은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이게 적절하게 어울리는 기관과 활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사업설명회를 하고 이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죠.(실무자1)

저희가 이번에 자전거 캠프를 다녀왔어요. 자전거 캠프는 안전을 필요로 하고 예산을 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된 지역자원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경륜에 저희가 장학금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사회에서 저희 아이들이 다쳤을 때를 대비해서 후원금 정도를 받아서 그렇게 활동하고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협약을 체계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발견이 되었을 때 저희 쪽으로 바로 연계할 수 있게끔 다양한 지역자원하고 협약을 맺어가면서 가고 있죠.(기관장1)

일단 여기 수련관에서 체육시설 같은 거 이용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3층에 외국어 체험센터 연계해서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 연계하고, 스포츠문화센터가 있어요. 거기랑 또 연결을 해서 거기 프로그램, 생활체육 프로그램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이런 걸 다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연계를 하죠.(실무자2)

우선 진로터전이라는 그런 게 있으니까 업체 사장님들이나, 뭐 기관이나 이런데 다 협조를 구했고. 아이들 체험할 수 있게끔 많은 거 좀 시켜 보게 해달라고 하죠. 근데 솔직히 아이들 할 건 많진 않아요. 갔을 때. 근데 그 분위기를 본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경험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관심이 생길 것 같으면 심화해서 교육을 시켜준다거나 아니면 그때 직업역량강화 거기를 보내는 거죠.(실무자2)

지역연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지역의 복지재단이 있어요. 이런 데에서 이제 지원을 받고요. 또 지역의 로타리클럽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 지역연계 일을 많이 하죠. 그리고 시민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에 공모를 하고 지원을 받기도 해요. (실무자3)

(2) 기관 서비스 운영 중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서비스 운영시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은 다섯 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이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각 기관 공통적으로 전용공간 없이 타 기관과 공용으로 활동 공간을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의 필요성을 제일 강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이 자유롭게 찾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독립 공간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공간이 가장 필요하죠. 보시다시피 아이들이 있을 공간이 없으니 우리 사무실에서 주로 함께해요. 물론 실무자들의 눈에 보이는 곳에 있는 게 제일 안정적이긴 하지만 아이들과 일일이 대화 하다보면 저희 업무를 못 할 때도 많아요. 상담하는 곳도 한 귀퉁이에 작게 있어서 두 명 정도 들어가면 딱 차요.(실무자1)

사실 사무공간과 아이들 공간이 분리가 너무 안 되서 아이들이 갑자기 마술을 보여 달라고 하면 마술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거예요. 그래서 경계가 없다보니깐 선생님들의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희 수련관하고 평생교육원하고 대관을 하기도 하는데 저희 공간이 아니다보니깐 아무래도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자체 공간이 있는 것이 일순위에요. 당장 임시로 있을 공간이 필요하죠. 검정고시 교실도 장소가 없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안정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배우겠다고 와서 정말 신기하긴 해요.(기관장1)

공간이 필요해요. 사실 저희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활동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은 변화한 도시가 아니라서 아이들이 갈 데가 많지가 않아요. 전용공간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찾아올 텐데 그렇지 않다보니 발걸음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시에서 공간을 확보해주면 좋겠어요.(실무자2)

지금은 150㎡만 갖추고 있으면 꿈드림센터를 할 수 있어요. 150㎡은 교육실하나 상담실하나 사무실 하나예요. 우리는 딱 153㎡이더라고요. 여기, 사무실, 공동체실, 교육실이 딱 153㎡이예요. 이것만 갖고 이 많은 아이들의 교육지원 자립지원 상담까지도 다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오자마자 검정고시하고 싶다고 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일단 익숙해질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려요. 그럼 아이들이 오다가다 들려서 그냥 언제든지 가도 설 자기공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그런 공간이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공간에 맞춰서 실무진들도 충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학교라는 개념보다는 학교처럼 활용할 수 있는 늘 가면 있고 기능에 맞게끔 공간배치가 되어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한 거죠.(실무자2)

②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서비스 중 교육지원 사업에서 검정고시와 관련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대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대학정보를 원하는 청소년들에게는 실무자들이 직접 대학 자료나 입시요강 등을 알아봐 주기도 하지만 정보에 그칠 뿐이다. 대학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대학진학을 위한 교재나 학습지원이 필요해지고 있으며 입학 후 지원에 관해서도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예전에는 검정고시 학력 취득만 하게끔 하는 게 목표였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점점 더 생각이 달라져서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욕구들이 많은데 거기서 등록금을 지원한다거나 학원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런 게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업을 하라고 하는 비용보다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수혜가 되는 교육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돼요.(실무자1)

③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찾는 청소년의 특성 중 정서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포함하여 우울과 자살경험까지 가진 청소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였다. 이런 특성을 보이는 청소년들은 실무자가 1:1로 정서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계속 1:1 맞춤형서비스를 하다보면 다른 업무를 이어갈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정서지원 부분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인력이나 아니면 활동부분에서 실무인력이 좀 더 확충될 필요성을 이야기 하였다.

저희가 상담자로서의 전문성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 업무가 많다보니깐 상담업무에도 충실 할 수 없고...(실무자2)

가장 필요한 건 정서적 지원이 가장 필요한데, 직원이 그 친구들을 응대를 해주잖아요. 상담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집단으로 여럿이 모여서 얘기를 해주고 그래요. 이런 게 솔직히 따지면 수다거든요. 근데 애들은 거기에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되고 하니까 이런 걸 안 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본인의 일을 못해요. 맨날 야근해요. 저희 추가 수당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근비 못준다고 빨리 퇴근하라고 해도 다들 일하고 있고, 진짜 인력이 필요해요.(실무자3)

④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은 직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 및 기술은 습득할 수 있으나 기술 습득 후 더 많은 경험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 현장에서 좀 더 경험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작업 공간이 필요하다. 이런 작업장은 실무자들이 직접 운영하기엔 어려운 실정이므로 지자체나 지역연계 사업들을 통하여 진로 작업장을 더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기관연계를 통해서 작업장 활동 공간도 확보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립지원에서 자립 작업장도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또 애매한 게 자립작업장이라고 하면 애들이 인턴십과정 까지 애들이 끝났어요. 자격증과정부터 시작해서 인턴십 과정까지 끝났다고 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보게끔 자립작업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자립작업장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 해요. 그런데 그건 저희가 할 수 없잖아요.(실무자2)

⑤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 흥미, 욕구 등은 예전과 다르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무자들은 청소년들이 더 적극적이고 재미있게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그냥 아이들의 관심을 갖게 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만약에 애들이 관심 없는 인문학 프로그램을 만들어 놔어요. 애들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두 명, 세 명 오면 많이 온 거예요. 정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은 만들어 봤자 어차피 낭비고요. 정말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게 무엇인가를 알고서 만들어내는 프로그램 개발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조그만 프로그램 만들려고 하더라도 직업체험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직업 체험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애들이 원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비용적인 면과 재료비와 이거에 맞는 프로그램을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 그 현재 맞는 흐름 있잖아요. 유행에 따라 가지고 무엇으로 또 가야 되나. 그게 제일 힘들죠. 만약에 재밌는 거 만들어 놓으면 20명, 30명 다 와요. 예산이라도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범위라도 넓어요. 근데 그 작은 예산에서 뭘 해야지 아이들이 좋아할까. 좀 신선한 건 뭐가 있을까. 했던 걸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작년에 했던 거라 재미없어서 안 해요. 지속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신규사례가 있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실무자3)

4) 기반확립 방향 및 성공요인

(1) 기관 성공모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나형 센터 중에서도 대표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자리 잡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였다. 각 기관마다 그 동안의 운영 방법 및 시행하는 사업과 지역연계 방법들을 고려하면 세 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네트워크 확산형 이다.

①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두 기관은 초기에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에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기관이 자리 잡는 기초가 되었다고 하였다. 그 후 점차적으로 지역 기관과의 연계를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및 민간사업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질수록 실무진들이 업무가 많아지게 되고 별도의 인력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후 지역 네트워크가 활성화 되면서 정부나 민간사업의 사업공모보다는 지역기반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협조적인 체계를 만들기까지 저는 2~3년 걸린 것 같아요. 저희는 2015년 7월에 개소를 했는데 2016년에 제가 들어왔고 첫 해, 두 해는 저희가 내실을 다지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해요. 초기에 노력한 것은 정부나 민간기업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많이 지원한 것 같아요. 보이는 것 마다 지원하고 정신없이 사업운영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018년에 잘 다져져서 지역으로 확산이 잘 된 것 같아요.(실무자1)

어떤 게 선이고 후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초기에 민간기업 공모사업을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들이 지역신문에 올라가기도 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고 지역기관에서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후원을 해주려는 단체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는 초기엔 공모사업을 활발히 하고 그 후 지역 내에서 기반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역적인 부분에서도 오픈된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됐을 거예요.(기관장1)

처음에는 정부에서 하는 청소년 진로 및 진학 관련 사업을 많이 찾아봤어요. 우리 아이들이 바로 취업은 어렵더라도 방향이라도 제시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되요.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지역 내 기관이나 상인들에게 사업설명회도 열고 그러면서 점점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움직이는 거죠.(실무자1)

예전에 초기 센터장님이 추진력이 엄청나신 분이셔서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제안서 만들고 컨펌 받고 사업 확보하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어요. 예전에는 **화학 등 민간지원 많이 받았어요. 초기에 아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은 해야하는데 예산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엄청 뛰었어요.(실무자3)

기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진짜 다른 지역보다 획기적으로 공모사업을 많이 했어요. 억단위로 할 때도 있었지요. 일반기업에서 가져온 게 어마무시해요.(실무자3)

아마 2014년인가? 그때부터 하다가 작년부터 공모사업은 안해요. 너무 바빠요. 인력도 부족 하구요. 여가부에서 주는 금액으로는 인건비만으로도 부족하거든요. 이제는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만으로도 벅차니까 여기에 더 심혈을 쏟고 있어요.(실무자3)

②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한 기관은 초기부터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 등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사업초기에 기관 내 업무를 진행하기에도 실무자가 부족한 상황이라 다른 사업공모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사업과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하였다. 아직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하진 않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은 별로 안했어요. 하려고 해도 업무에 밀려서 외부공모에 고개 돌릴 틈이 없었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지역의 전문기관과 연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중략)...

저희가 그나마 아이들의 참여율이나 성과면에서 타 지역보다 나은 이유가 단지 우리만 잘해서 그런게 아닌 것 같아요. 아이들이 기관에 찾아오게 하기 위해선 물론 실무자들의 노력이 우선이 되겠지만 지역과 통합되어 여러 서비스 면에서 아이들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냥 강의실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주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지역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아직 지역연계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지역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더라구요...(중략)...

지역네트워크 연계를 하려고 자주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지역연계까지 하려니 실무자들이 더 고생이긴 하지만요...(중략).... 저희가 지역에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리 많진 않지만 전달해주는 저희는 굉장히 부듯하더라구요. 우리아이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더 많은 혜택과 선물을 주기 위해서 지역의 도움이 절실해요.(실무자3)

③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두 기관은 초기에는 기관이 자리 잡기 위해 정부나 민간기업 등과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였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가 활발해지면서 기관운영의 예산 등이 확보되었지만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게 되었다. 정부 및 민간사업 공모로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진행과정과 결과 등을 지역에 홍보하고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게 되면서 지역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지역연계도 활발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초기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해 기관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그 과정과 결과들을 지역에 홍보하면서 지역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는 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였다.

저희는 기관자립형같은데 지역네트워크확산형도 같이 겸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많이 끌어주고 이해해주는 기반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저희 지역은 사실 지역을 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역에서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고 애네들의 진로를 같이 개척해주고 하려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역 살롱도 있고 청년조례도 있고 저희 내부적으로 카페D 매니저를 한다든지, 빌드라든지 이런 청년들하고 같이 해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저희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기관은 센터 단독이라기보다는 지역에서 같이 끌어주고 함께 해주는 것 같아요.(기관장1)

저는 지역네트워크확산형도 맞고요. 그 다음에 기관자립형도 맞는데 왜냐면 저희 지역이 먼저 움직여준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관에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로 들고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저희 자체 내실을 키우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이런 것들을 지역사회에 들고 갔을 때 흔쾌히 받아주는 분위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자체가 그 부분을 움직이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업비를 달라고 하는 것, 인력을 총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시의원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어요. 만약에 저희가 잘 하고 있지 않는데 지역자원이 잘 따라온다고 해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켜내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활동처를 다니고 좋은 사례들을 만들고 하는 과정들이 쌓여야 지역 안에서 잘 수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실무자1)

공모사업은 지금은 못 해요. 지금 있는 것도 너무 많아요...(중략)... 초기에 지역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기위해 많이 노력 했어요. 지금은 지역 내에서 저희 인지도도 높아졌지만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예산서가 보면요. 밑에 외부 사업으로 지원 받은 금액이 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해요. 다 애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했어요.(실무자3)

(2) 기관 성공요인

학교 밖 지원센터 각 기관별로 성공모델이 되기까지의 성공 요인은 네 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무자들의 근무조건 안정화로 인하여 이직률도 줄고 이로 인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둘째,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로 인하여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 넷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이 기관의 대표적인 성공요인이라고 하였다.

① 실무자의 근무조건 안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실무자 급여수준은 중앙부처의 지침대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기관(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 등)과 동일하게 맞추고 있었다. 기존에는 타기관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고 또 지침대로 지급하다보니 실무자들의 불만과 이직률이 많았다고 하였다. 현장업무와 행정업무를 함께 진행하다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량에 비해 낮은 급여수준은 실무자들의 직무능률을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인터뷰한 기관들은 오랜 기간에 걸친 실무자들의 근무조건의 안정화로 인해 이직률이 거의 없고 업무능률도 높은 편이라고 하였다.

정말 여러 영역에서 저희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무자의 근무조건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게 전문성으로 연결되구요.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기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사실 아이들의 관리가 전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저희처럼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고용이 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처우 개선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요. 그리고 실무자들 중에서도 영역별로 전문가를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실무자1)

인력의 안정화, 계약직이긴 하지만 거의 무기계약직이라고 생각해요. 2년마다 계약인데 거의 그대로 가구요. 일단 인력이 안정화가 되어 있으니까 업무효율도 높아져요.(실무자2)

초기에 엄청 불만이 많았죠. 저희가 일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급여수준은 상담복지센터 직원들보다 낮아요. 여기부 치침자체가 달라요. 너무하더라구요. 같은 기관에 근무하게 하면서 급여는 다르게 준다? 그래서 잠깐하고 옮기는 경우도 많았어요. 아무래도 사기 떨어지잖아요... (중략)... 물론 지자체나 후원단체에서 급여명목으로 나오진 않지만 꽤 오래동안 지자체랑 후원단체에게 저희임장 설명하고 해서 지금은 이곳저곳서 다 맞춰놨어요.(실무자3)

②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기관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원활하게 청소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인터뷰한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제고와 더불어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를 얻기 위해 많은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으로 청소년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무자 복지부분도 많이 향상될 수 있었다고 하였다.

지자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자체를 통해서 예산이 좀 더 확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캠프 때도 와서 지자체에서 함께 하고 싶어서 빵, 음료 이런 지원도 있었어요. 저희 위탁법인도 YMCA 이예요. 지역 내에서 청소년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주민의 태도나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이기도 하죠.(실무자1)

사업적인 부분에서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고요. 실무자들의 복지 관련 부분도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해요. 저희가 바뀌지 않고 오래 동안 근무할 수 있는 것도 지자체와 협조체제가 잘되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위탁이 있긴 한데 지자체의 힘이 더 크던데요? 저희는 엄청 협조적인 편이예요. (실무자2)

③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

학교 밖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무자들의 복지혜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앞선 것은 실무자들의 책임감과 봉사정신이라고 하였다. 근무조건이 안정화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청소년관련 종사자들의 급여수준은 다른 직종에 비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다. 청소년과 함께 하겠다는 책임감, 봉사정신 적극적인 자세 등이 함께 어우러져서 기관을 더 빛낼 수 있었다고 하였다.

실무자님들의 영향이나 봉사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해요. 2명이 바뀌고 난 후 2015년부터 같은 멤버예요. 저희가 학교 밖 사업을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가야하지 않을까 저희 입장이에요. 지금 하는 게 굉장히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쉬운 방법으로 프로그램만 돌리고 성과만 되면 저희도 그렇게는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 양심에 찔리는 거죠. 그래도 저희가 초창기에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셋이 마음이 맞아서 그렇게 하고 있죠. (실무자2)

④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참여

학교 밖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프로그램 자체를 기획하기도 힘들다고 하였다. 참여자가 많으면 실무자들도 프로그램 운영 시 더 보람을 느껴 열심히 하게 되고 추후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고 적극적이 된다고 하였다.

우선 애들이 많으니까.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상자가 있어야 공모사업을 써요. 원인은 아이들인 거예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해도 됐다고. 근데 거기에 하나를 더하자면 이제 선생님이 가지고 있던 열정들, 그게 없으면 안 되지만 근데 열정만 있다고 될 건 아니거든요. 그 베이스는 학교 밖 아이들에게요. 학교 밖 아이들이 그만큼 참여도 많이 해줬어요. 저희가 12년도부터 두드림, 해일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연계가 되어있던 청소년들이 많았어요. (실무자3)

프로그램 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 더욱 많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라도 더 찾아서 도움이 되게 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얼까 늘 고민하게 되죠. 예를 들면 대학에 가고 싶는데 등록금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희가 사방팔방 알아봐서 장학금 받아 그 아이 대학에 보냈잖아요.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면 어떻게라도 도와주고 싶어요. (실무자2)

5) 지방자치단체

(1)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관별로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를 살펴본 결과 두 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것은 지자체와 지역의 네트워크 결성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예산 확보이다.

① 지자체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의 실무자와 기관의 실무자가 모여 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지자체 내에서도 관련부서와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사업설명회 등도 꾸준히 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CYS-NET등 네트워크 활동을 활발히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시장님까지는 아니지만 평생교육원장님과 교육청소년과장님과 팀장, 주무관 이런 분들과 같이 운영위원회의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다른 연계기관들이 있어요.(기관장1)

저희가 Cys-net의 연결 필수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필수로 연결되는 게 운영위원회와 실행 위원회가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한 분 오시고, 경찰청에서도 한 분 오시고 그래서 운영위원회 모임이 일 년에 두 번 있어요. 그 다음에 실행위원회는 네 번이 있어요. 실무진들. 그래서 그 팀들하고 같이 지역협의체를 꾸려가지고 실행위원회를 할 때 학교 밖 사례를 다루는 회의를 진행하죠. 그리고 저희가 외부사례회의라고 해서 저희 아이들 복지지원 할 때 저희 안에서 대충 회의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몇 분 오셔가지고 사례판정을 받고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실무자1)

사업설명회는 저희 학교 밖 사업을 홍보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자리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런 인식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죠...(중략)... 동장님들한테까지도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사업에 대한 안내들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사업설명회가 진행 되요. 초기에는 10~20회 정도 한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인턴십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협약을 할 때 사업설명회를 진행하고 그래요. 협약이 저희가 그래도 매년마다 한 5~7곳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 때 마다 사업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년에 사업설명회도 5~6번 하는 것 같아요.(실무자1)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위원회죠. 부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실 거예요. 회의는 청소년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 거기 위원님으로 오셔서 이해관계가 좀 있으신 분들이 오서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죠. 1년에 2번 정도 CYs-net처럼 횡수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있어요. CYs-net이랑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실무자3)

②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예산확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하였다. 그로 인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조례제정이나 정책변화에 대해 긍정적이며 예산확보도 가능하다.

학교 밖 아이들에 대한 이해가 많으시죠. 저희가 항상 사례들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수사례도 받고 표창도 받고 이러한 기회들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이 많이 지원된다고 생각했는데 올해는 더 추가로 지원이 됐어요. 작년에는 1억5천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더 되요.(기관장1)

18년도에는 식비 1,075만원 지원받았고요. 그 이외에 저희 인건비 지원받고 있어요. 식비는 시에서 지원을 받은 거고, 올해 2019년도에 도에서 처음으로 식비지원이 나온 거죠. 저희는 작년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가 있고 지원위원회가 생겼어요.(실무자2)

조례는 2015년 12월 24일 날 만들었어요. 학교 밖 지원위원회 조례를 저희랑 유대관계가 있는 시의원 한분이 같이 만들자고 해서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만들었어요.(실무자3)

예산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주죠. 지자체에서 관심이 많은 편이라 저희가 사업운영하기가 다른 지역보다는 수월한 면이 있어요.(실무자3)

(2) 지자체 지원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 기관 공통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였다. 기관별 지자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진로 작업장 예산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의 세 가지이다.

① 진로 작업장 예산 지원

진로에 대한 관심과 취업욕구가 높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는 매우 중요하다. 직업현장에 바로 투입된다면 경험과 기술의 부족으로 난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에 대비하여 진로 작업장이라는 공간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기술을 습득하는 시간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값진 경험이 될 것이다. 기관의 예산으로는 작업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해 줌으로써 좀 더 안정된 작업장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저희 진로작업장 예산이요. 진로작업장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진행되요. 주민참여예산은 일 년 단위거든요.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못하면 없어지는 상황이 생겨요. 그런데 이거를 아이들의 진로자립을 위해서 보존을 해 준거죠. 그래서 시가 3,720만원을 매년 시비 예산 조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하고 있어요.(실무자1)

② 미취학 및 초등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한 기관의 지자체에서는 미취학 아동과 초등연령대의 학교 밖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었다. 어찌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의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는 저 연령대의 아이들에게도 프로그램지원을 해 줌으로써 위기상황으로 몰리는 아이들에 대한 비행 예방과 동시에 기관이 활성화도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2016년에서 2019년에 연 5백만원을 받아서 미취학 아동이랑 초등연령대의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만 하고 있어요. 식비도 **시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그냥 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실무자2)

③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학교 밖 지원센터 중 한 기관은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지만 특히 문화 활동 관련 지원을 청소년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학습 등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다. 여러 가지 문화 활동 중 수학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또래와 함께 어울려 즐거움을 경험하고 소속감도 길러주어 청소년들의 호응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게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주는 인턴십 프로그램, 수학여행, 검정고시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 수학여행은 매년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가장 호응이 좋아요. 아이들은 수학여행이라는 걸 경험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함께 진행하는 저희들도 아이들이 설레고 좋아하는 것 보면 뿌듯하더라고요. (실무자3)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

추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발전방향에 대해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바라는지에 대해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다섯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둘째,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필요 셋째,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넷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다섯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을 이야기하였다.

① 실무자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세 기관 모두 실무자들의 급여수준 및 인력확보 부분에서 많은 안정화가 되어 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원이 아니라 지자체, 후원단체, 위탁법인 등에서 지원을 받아 안정화가 된 것이다. 복합적인 연계가 어려운 지원 센터가 많은 실정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실무자들의 인력충원 및 근무조건, 급여 수준에 대한 상향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아이들은 계속 누적이 되는데 그 아이들을 검정고시만 보게 하고 그냥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후기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는 그런 과정에서 학교 밖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이 또 생기는 거죠. 후기청소년에 대한 관리까지 저희에게 역할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상황은 너무나 비대해지고 해야 할 영역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중략)...그렇다면 발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나 처우나 실무자들이 소진되지 않게끔 제대로 정책들을 펼치고 인력확보와 인건비에 대한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실무자1)

실무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1대1 관리가 가능하고 아이들이 사회로 나갔을 때 범죄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연루 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개 실무자들의 노력만으로 커버될 수는 없어요. 지자체 마다 너무 시스템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력을 더 채용한다든가 그런 인건비에 대한 가용도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수준으로 맞춰준다면가 이런 식의 노력들이 정부에서 필요할 것 같아요.(기관장1)

여기부에 바라는 점은 처우죠. 저희 실무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2년 되면 너희들 알아서 나가라.'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죠.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저희의 처우를 위해서 노력해줘야 할 것 같아요.(실무자2)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희망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급여테이블 좀 바꿔주시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야 그만큼 아이들에게 가는 게 있고 많거든요.(실무자3)

② 고위험군 상담 전문 인력 확보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중 우울 등의 정서적 불안정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 그 중 고위험군의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발굴하거나 청소년들이 직접 찾아 오기도 하는데 그들을 심층적으로 상담할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상담복지센터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을 담당하는 꿈드림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담 따로 활동 따로 지원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같은 기관 내에서 청소년을 직접 상담하고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시행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고위험군을 케어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가 있어야 되요. 자살위험이 높다든가 정신문제가 높다든가 이런 아이도 케어 할 수 있는 인력이 센터에 배치가 되어야겠죠.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복지 지원을 한다든 가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배치가 되어야 되겠죠...(종략)... 쉬운 말로 여가부 정책도 그렇고 상담하기 힘들다고 그러면 우리는 생활관리 정도만 하고 상담은 동반자에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한번 집밖에 나오기 어려운 아이들이 여기를 억지로 어렵게 어렵게 왔어요.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럼 이 선생님을 믿고 한번 해볼까 했는데 상담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쪽(상담복지센터)으로 가봐'라고 해버리면 이 아이는 또 버림받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아이들도 케어 할 수 있는 상담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실무자2)

③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한 후 겪게 되는 어려움 중 또래들이 속한 단체에서 소외되어 끈 떨어진 연이 된 듯한 불안감이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또 다른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꿈드림센터가 아닌 학교 밖 학교로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학교가 어려워서 나왔지만 소속감이 필요하고 또래관계가 필요하고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기 시기잖아요. 그거를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뭐 꿈드림센터라면 꿈드림센터지만 꿈드림센터에 교실도 있어야 될 거고 동아리실도 할 수 있어야 될 거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맡아줄 선생님도 있어야 될 거고, 학교 밖 학교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무자2)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현재는 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같은 공간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관 책임자도 상담복지센터장과 겸직이다. 인터뷰한 기관 중 한 곳은 중앙정부의 지침상 기관책임자는 상담복지센터와 겸직을 하고 있었지만 꿈드림의 고유번호증을 만들어 상담복지센터와 다른 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다. 기존에는 주변인식이 상담복지센터에 포함된 활동부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하지만 고유번호증 발급 후 상담복지센터에서 독립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서의 인지도가 상승했다고 하였다. 중앙정부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를 독립된 기관으로 변경하고 기관특성, 지향목표, 실무자, 사용 공간 등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처음에 제가 여기를 맡았다고 했잖아요. 원래는 이게 생기기 전에 상담복지센터에 소속되어 같이 사업을 하다가 떨어져 나오면서 그때 제가 여기 아예 맡아 하면서 저희는 고유번호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엄연히 다른 기관이에요...(중략)... 따지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예산때문에 센터장님 겸직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겸직을 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독립을 시켰다면 그럼 기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관이 따로 가야 그 기관의 특성에서 살아요. 독립된 기관으로 가면 진짜 센터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따라서 아이들에게 좀 더 안정되고 나은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실무자3)

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

중앙부처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욕구를 고려하여 상담지원, 교육지원, 취업 및 자립지원, 활동지원, 복지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카테고리
고리에 맞게 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사업예산으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보면 결론은 예산이에요. 물론 저희는 지자체, 위탁법인, 지역네트워크
등에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이 더 많잖아요. 또 지원받기까지의 과정이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도 지원을 못받는 곳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원론적인
부분에서 바뀌줘야 하는데 그게 중앙정부인 것 같아요.(실무자1)

진짜 학교 밖 예산이 너무 적어요. 예산을 좀 지역의 실정에 맞게 분산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잉여예산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에 맞게 하여 지역별로
예산 자체가 남으면 그 예산으로 다른 부족한 곳에 인력을 더 추가 적으로 주고 예산을
좀 더 쓸 수 있게끔 해 주면 아이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을 텐데... (실무자3)

(2) 광역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이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두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지원 둘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 지원이다. 교육비와 자립비는
광역자치단체나 도 관할 입장에서 가장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① 학교 밖 청소년 교육비 지원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은 교육비 지원의 명목으로 여러 가지 교구 및 교재
등을 지원받고 있다. 학업중단 후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비 지원의 명목으로
지급이 이루어진다면 청소년들에게 좀 더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였다.

학교에 있을 때 청소년들은 많은 지원을 받고 있었어요. 급식비, 교재비 등등... 그런데 학교 밖으로 나오면서 이런 지원들이 끊긴 거잖아요. 학생이라는 이유가 아니라서? 물론 저희 도에서는 급식비 지원의 항목으로 약간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광역이나 도에서 이런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비도 차등 없이 골고루 다 지원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실무자1)

② 학교 밖 청소년 자립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복지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이 또한 경제상황을 고려한 차등지원이 학교 밖 청소년 모두를 위한 자립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특별지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18세까지만 적용되어있어요. 24세까지 되기는 하지만 그 아이들이 학교에 재학하여야 가능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없죠. 근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 센터에는 만 18세 이상인 아이들이 많거든요. 20세가 넘어가면 이 친구들은 자립을 훨씬 원하게 되는데 특별지원에 대상이 되지 않아 자립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실무자1)

(3) 기초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많은 진로체험이 가능한 진로작업장 확장과 둘째,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① 진로작업장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각 기관은 현재 지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작업장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넓은 지역에 비해 진로

작업장은 부족한 현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기반을 위해서도 취업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해볼 수 있는 작업 공간은 필수이다. 부족한 현실이다 보니 깊이 있는 기술의 체험보다는 형식적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역 내에 진로작업장을 골고루 설치해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더 많은 진로체험을 할 수 있을 거라 하였다.

저는 진로작업장 같은 곳을 군데군데마다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거점이 되는 진로작업장 공간이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과정도 있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진로작업장 공간 확장에 대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실무자1)

②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필요

지자체와 협조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학교 밖 지원센터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원활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적극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도 자주 하고 기관의 행사마다 담당공무원을 초대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있다고 하였다.

이거는 담당공무원의 의지인 것 같은데 시의 의지고...(중략)... 지자체에서 꿈드림을 맡은 공무원들과 저희는 굉장히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꿈드림사업이 어떻게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어떤 도움을 줘야 한대라고 수시로 이야기 하고 보여주고 있지만 한쪽에서만 적극적이면 안되는 거잖아요. 담당공무원도 자주 바뀌고... 지자체에서는 담당공무원이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저희 쪽에 여러 가지 사례등도 함께 공유하며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실무자2)

③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 필요

앞서 이야기 하였지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지역의 지자체와의 협조는 매우 중요하다. 지역마다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지자체가 학교 밖 지원센터를 시 소속으로 하고 운영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였다. 실무자들의 근무조건도 개선될 수 있을 것이고 지역과의 연계에 있어서도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지자체가 직영인 곳이 몇 군데 있어요. 물론 실무자들도 공무원화 되어 있어요. 경상도 쪽이 공무원 처우를 해주는 곳이 많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경상도 쪽이 위탁 보다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좀 많다 라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좀 대우가 2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공무원처럼 끝까지 공무원 혜택을 주면서 특별 채용하는 것처럼 공무원복지카드도 나오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상담복지센터랑 학교 밖 센터 다요. 이게 롤모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안정이 되거든요. 떠날 이유가 없어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과장님급이 센터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오케이 사인만 내주면 예산 딱딱 나오고 바로 바로 시설부로 연결이 되고 이게 최고예요.(실무자3)

(4) 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기관의 종사자들이 교육청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네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시에도 학력취득을 하는 것으로 인정해 주고 둘째, 학교 내의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이 필요하며 넷째,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력취득을 위한 협조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취득을 위해서는 검정고시가 유일한 방법이다.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 중 가장 우선순위로 검정고시 합격이며 기관을 찾는 이유도 검정고시 합격과 관련하여 교육지원을 받기 위해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검정고시 합격을 위한 대비만 해줄 수 있고 학력취득과 관련한

다른 방법은 없는 실정이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학력인증프로그램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이게 좀 더 중등 고등 연령의 청소년들에게 까지 확장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기관 내에서 하는 학업관련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는 것이 학력취득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 중 학력취득이 1순위잖아요. 지금까지는 유일하게 검정고시였는데 지금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라 해서 의무교육단계 아이까지 온라인교육을 듣고 콤팩트센터에서 지정을 받으면 활동하는 것까지 인정을 해줘서 학력을 취득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초등과정이 4,000시간 중에 80%인 3,300시간정도만 이수하면 학력인정이 되게끔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홈스쿨링 하는 아이들은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검정고시 아니고는 학력을 취득할 수 없잖아요. 이게 좀 더 확장되고 전국적으로 시행되었으면 해요. (실무자2)

②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의 학교 내 운영 협조

학교 밖 청소년들은 가정요인으로 학교를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학업중단이 발생한다. 현재 학교 내에서는 학업중단숙려제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숙려제 프로그램을 학교를 그만두는 과정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였다. 좀 더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과 학교 밖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관의 실무자들이 학교 내에서 직접 학업중단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업중단예방에 있어서도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뭔가 힘든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둔 거잖아요. 학교에서 힘든 점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주면 학업중단 예방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전무한 상태인거예요. 학업중단숙려제는 이미 학교를 그만둔다고 마음먹은 후에 적용되는 거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떤 곳은 다른 기관에 학업중단숙려 프로그램을 맡기고 학교 다니는 청소년과 함께 운영하게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중략)... 작년에 시범적으로 저희가 프로포절을 해가지고 5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자체프로그램을 해서 그래서 25명이 신청을 했는데 23명이 학교로 다시 돌아갔어요. 이런 예방프로그램이 협조가 잘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실무자2)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예산이 교육청에서 전혀 확보가 되어있지 않고요. 주관은 학교장이 하도록 되어있어요. 우리 꿈드림에도 전혀 예산이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 학교 밖을 나온 아이들 예산을 지원하기도 부족해요. 우리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을 다룰 수 있고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을 다뤘던 경험과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교육청 주관이니깐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줘서 각 지역 꿈드림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어요. 저희는 노하우가 있으니깐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할 수가 있으니깐 그게 협조체제로 간다면 그게 학업예방에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실무자2)

③ 학업중단숙려자 리스트의 빠른 전달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은 교육청에서 보내오는 학업중단숙려 리스트가 너무 늦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고 있다. 학업을 중단하고 몇 개월이 지나서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이미 지역을 떠난 경우도 있다고 하였다.

2016년에 제가 왔었을 때 아이들 명단을 찾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발굴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러면서 교육청에 연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라는 제안들이 나왔고 그 후 이 시스템을 갖추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근데 시스템이 갖춰져도 아이들이 자퇴를 하게 되면 명단이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이런 명단을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일일이 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선생님들이 미뤘다가 한, 두 달 뒤에 처리를 하면 그 아이는 너무 늦게 저희 쪽으로 넘어오게 되거나 그래요. 아무리 저희가 연계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드리지만 학교 내 아이들도 챙기기 어려운데 학교 밖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었거든요. 학교 밖 아이들을 챙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리스트만 빨리 전달해줘도 될텐데요.(실무자1)

저희는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를 그만둔 후 특별히 할 게 없으니 주변 도시로 하나둘씩 나가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다시 원래지역으로 돌아오기 힘들어요. 또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많구요. 학교 내에서부터 잠재적 학교 밖 청소년일 때 저희에게 빠른 전달을 해준다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실무자2)

지금 꿈드림 쪽으로 다이렉트 연결해서 아이들이 올 수 있게 해준 건 사실이에요. 잘 하고 있지만 리스트를 조금 더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다 실시간으로 주기는 준다고 하던데 늦으니깐 아이들 연락처 바뀌거나, 마음 변하고 다른 거 하고 있으니 기관 오는 거 의미없어 하구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기지원도 못 받는 경우도 많아요.(실무자3)

④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 변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의 문제로 인해 학교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로 17세 정도에 학교를 그만두는 비율이 높다는 것은 고등학교에 입학 후 어려움에 부딪히는 상황이 많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학업중단 요인이 있겠지만 학업위주의 교육에 대한 압박감, 학업량의 증가로 인한 스트레스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소년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육체제가 점차 변화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발생비율도 낮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교육청 쪽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저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되는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안에서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요. 학교가 체제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자퇴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입시를 위한 학업위주 교육이잖아요. 자유학년제 등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그건 중학교 의무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학업중단 비율은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가장 많이 발생해요. 학업에 대한 압박이나 부담을 좀 더 덜어주는 무언가가 필요해요.(기관장1)

자퇴에 대한 인식이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학교를 박차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가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아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로 브이로그를 한다든가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학교 밖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자퇴생으로서 잘 살아가 있는 모습을 모델링하고 있는 것도 많기 때문에 학교를 나오는 것에 대한 문제는 개인의 선택 영역으로 둘 수밖에 없는 구조로 왔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다고 하면 왜 떠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야 할 것 같아요.(실무자1)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다음의 [표 IV-2]와 같은 내용으로 심층 면접하였다.

표 IV-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의 심층 면접 내용 및 하위범주

내용	범주	하위범주
연계기관	기관의 사업 유형	·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있는 기관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연계과정	· 인턴십 훈련과정 진행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찾아옴
청소년 특성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경로, 연령대, 욕구, 특성	·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 17~22세 학교 밖 청소년 이용
		·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
		·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
		· 주변 환경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서비스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 내향적인 성격 및 무기력증
		· 청소년 욕구에 맞춘 기초 업무
		· 1년에 2~3명 정도 훈련
		·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훈련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인계 후 인턴십
	기관 서비스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	· 특별한 사후관리 없음
		· 지역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
		· 인턴십 활동 후 기업 내 정직원으로 채용
		·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의 지속의향 있음
	기관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	· 지역특성상 다양한 직무체험의 어려움
		· 넓은 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함
		· 인턴십 활동 참여 청소년에게 직장예절 교육필요
		· 인턴십 후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필요

내용	범주	하위범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중앙정부	•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확대 필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
	기초자치단체	•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연결
		• 지자체에서 지역 내 민간기관에 지원요청
		• 인턴십 활동시 예산확대
		• 지역 내 관련기관의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

1) 연계 기관

(1) 기관의 사업 유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유형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문화센터)과 지자체와 연관되어 사업을 하는 기관(사회적기업, 요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세 기관 중 두 곳이 지자체가 관할하는 공공기관이었다. 지자체의 관리 아래 연계가 이루어지다보니 청소년과의 교류 및 사업에 대한 이해 등이 훨씬 수월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주로 시에서 위탁 사무에 관한 것을 받아서 실시 중이에요.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유지 그리고 공공체육 시설물, 생활체육의 전반적인 부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실무자4)

**시민들을 위한 체육 수영, 헬스, 체육관을 운영하고 문화 쪽에서는 공연장관련사업과 예술 아카데미사업을 하고 있어요. 성인들 기타와 미술이 있고 유아와 영유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따로 있습니다.(실무자6)

② 지자체의 협조를 받고 있는 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또한 지자체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지역 내 기업이나 지역상인 등을 직접 찾아다니며 연계를 요청하다보면 설명회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은데 지자체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다보니 곧바로 연계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기도 해요. 지역기반 창업자 교육사업이랑 지역생산식재료 유통회사, 지역주민들과 커뮤니티모임을 가지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하면서 매장운영을 하고 있어요. 레스토랑, 플라워북카페, 실내키즈카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실무자5)

여기는 노인요양사업을 하는 곳이에요. 시에서 진로터전이란 사업을 하는데 그곳에 가입되어 있는 기관이에요.(실무자7)

(2)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연계과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및 연계과정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은 인턴십 훈련과정 진행,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관으로 찾아온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알게 된 경우였다.

① 인턴십 훈련과정 진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은 학교 밖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그로 연계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만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사업 중 우주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직업체험을 다양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업무 중 행사, 시설, 체육감사, 행정쪽 등에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다고 하면 작년부터 모집을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3개월 정도 취업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실무자4)

꿈드림에서 소개받은 청소년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다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나 레스토랑에 취업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주기도 해요. 학교 밖 청소년들과 우주인 인턴십프로그램 참여하는 중이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삶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학교를 자퇴한 학생들이 있다 보니깐 이런 학생들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해서 훈련들을 거치면 일반적인 학생들보다도 훨씬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친구들이 삶에 대한 책임을 기를 수 있게 초점이 맞춰져있어요.(실무자5)

청소년인턴십이라고 해서 꿈드림에서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을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저희가 면접을 보고 채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여학생 1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검정고시랑 다른 거 준비하는 게 있다고 해서 오전에 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여자탈의실 쪽에서 청소를 하거나 아이들을 봐주는 업무를 주 14시간동안 하고 있습니다.(실무자6)

사에서 진행하는 진로터전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는 의뢰가 왔을 때 내부사정에 따라 지도가 가능하면 수락해서 받고 있어요.(실무자7)

②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찾아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직접 공공기관으로 찾아가 사업관련 협조를 받는 경우도 있다.

꿈드림은 처음 들었어요. 꿈드림 기관에서 먼저 부탁을 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저희는 공공기관이다보니 옆에 청소년 수련관을 관리하거든요. 수련관 안에 같이 입주되어 있는 기관이라 뭐하는 곳인지 궁금하긴 했어요.(실무자4)

2년 반 정도 되었는데 기억이 잘 나지는 않는데 아마 꿈드림에서 빌드를 찾아온 것 같아요. 시에서 예비 사회적 기업인증을 받았을 때쯤에 연결된 것 같아요.(실무자5)

저희는 조금 특이한 경우이긴 해요. 제가 전 직장이 꿈드림 이다보니 아무래도 제가 더 편하겠죠. 진로터전에 등록도 되어있지만 꿈드림 실무자가 먼저 전화를 주셨어요. 연락주셔서 연결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요.(실무자7)

③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시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시작은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때문에 연계한 경우도 있다.

공공기관이다보니 사회공헌사업부분이 경영평가에 들어가기도 해서 사회공헌사업 쪽을 알아보다 꿈드림센터가 있는 걸 알았어요. 차상위계층이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다 보니 꿈드림센터와 연계해서 2017년 4월인가 5월쯤에 멘토링과 인턴십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 현재 멘토링은 대상이 없어서 못하고 있고 인턴십만 3개월씩 주 14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실무자6)

2) 청소년 특성

(1) 기관 이용 학교 밖 청소년의 연계경로, 연령, 욕구,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7~22세의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특성이 보이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과 매사에 무기력함을 보이는 특성도 나타난다.

① 17~22세 학교 밖 청소년 이용

학업을 중단하는 시기가 보통 고등학생 시기이다 보니 지역 내 타기관을 이용하는 연령대도 17세부터가 대부분이다. 기관을 이용하는 성별의 비율은 비슷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을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저희는 꿈드림기관을 통해서만 오고 개인적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보통 18~22살 청소년들이 와요. 성별은 반반인 것 같네요.(실무자4)

학교 밖 청소년들은 전부 다 꿈드림센터에서 직접 연결을 해주고 그 이외에는 없었어요. 오는 아이들은 주로 17~19살 이었던 것 같아요.(실무자5)

저희 기관에 오는 청소년은 17~19세입니다. 물론 꿈드림을 통해서만 오구요.(실무자6)

②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

인턴십을 신청하고 직접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은 진로와 학업 관련하여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었으며 많은 부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훈련을 받으면서 좀 더 확장하여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관련분야로 진로방향을 결정한 청소년도 있다.

처음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하면 문제아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같이 지내다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어 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 이것저것 많이 알고 싶어해요. 그리고 대부분 착하고 문제가 있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예의바른 친구들도 있더라고요.(실무자4)

욕구는 다양한 것 같아요. 음악이나 꽃 이런 거에도 관심이 있고 아이들의 지금 관심이 평생직장으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해보고 싶을 때 해봐야 자신이 정말 잘 맞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실무자5)

③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

인턴십을 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 적극성을 보이는 청소년도 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던 실무자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선입견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다.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편이에요. 먼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말을 해줘서 그것을 통해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수영강사, 헬스강사, 공기업 행정업무, 검정고시 등이 있어요. (실무자4)

적극적으로 저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통 22시가 지나서도 적극적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귀찮게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연락 계속 해서 이거 하려는데 안 된다. 그 정도로 열정을 보이는 친구들도 있어요.(실무자7)

④ 주변 환경으로 인한 위기청소년

가정환경의 경제적 어려움, 가족 불화 등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인턴십 과정에서도 위기청소년의 특성을 나타낸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아이들도 있어요.(실무자4)

돈 벌러 오는 친구들이 많은데 주변의 환경이 받쳐주지 못한 위기청소년들이 비율로 따지면 많은 것 같아요.(실무자5)

이야기를 잘 안하더라고요. 예로는 예전에 남학생이 한명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안환경까지는 물어보지는 않으니깐 거기 있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학생아버님이 알코올중독이라 아버지랑 둘이 사는 걸 힘들어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깐 짠하더라고요.(실무자6)

⑤ 내향적인 성격 및 무기력증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중 무기력으로 인해 말을 별로 안하거나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자기 이야기를 잘 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처음에는 저도 대화도 많이 하고 음료수도 사주고 뭐도 하고 친해지려 하려고는 했는데 쉽지는 않더라고요. 반반인것 같아요. 적극적인 친구도 있겠지만 제가 봤던 친구는 무기력해보이고 내성적이며 다크한 학생들도 있고 다양한 것 같아요.(실무자6)

실제로 돈만 보고서 그냥 와가지고 앉아있다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냥 시간 보내고 돈도 준다니까 왔다 가자. 그리고 이따 센터 가서 놀아야지. 하는 친구들도 많아요.(실무자7)

3)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서비스

(1)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관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서비스 운영현황 및 사후 관리는 다섯 가지의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유형은 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둘째, 한해에 2~3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인턴십활동을 하고 있다. 넷째,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으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인계받은 후 기관방침에 따라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다섯째,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① 청소년 욕구에 맞춘 기초 업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대부분 기관 내에서 청소년이 원하는 업무를 맡게 한다. 우선 1차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춘 인턴십 활동을 신청하게 하고 타기관으로 온 후에도 본인이 하고자 하는 업무 중 기초 수준의 업무를 하게 한다.

예를 들어, 수영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이 오면 수영장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수영장 안내, 전체적 분위기, 직장 생활 질서, 예의 등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입니다.(실무자4)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 하는 욕구를 들어보고 아이들이 원하는 쪽으로 저희 업체들에 연락을 해서 컨택을 해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하는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에게 오면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들 의견을 듣고 그에 맞는 업무를 맡게 해요. 그래야 지속성이 있죠. 처음에는 일의 단위가 굉장히 작고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알려 주고 있습니다.(실무자5)

② 1년에 2~3명 정도 훈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1년에 2~3명 정도다. 타기관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꾸준한 연계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이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1년에 3~4명 정도 신청하고 중도포기학생 있어서 2~3명 정도는 꾸준한 훈련을 받는 중이에요.
(실무자4)

2년 동안 총 5명이 왔었어요. 1명은 인턴십 끝나고 정직원으로 채용하기도 했고 1명은 중도포기 했고, 1명은 인턴십 끝나고 파트타임 일하다가 그만두었고 현재는 바리스타교육 1명, 도시재생 1명 교육 중에 있어요.(실무자5)

2017년부터 서비스가 시작되어서 2017년에는 2명, 18년에 4명, 19년에 1명, 현재 하고 있는 학생은 6월부터 시작했어요.(실무자6)

③ 학교 밖 청소년 인턴십 훈련

인터뷰한 기관마다 지역 내 타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사업은 인턴십 활동이다. 추후 좀 더 확장하여 청소년들의 인턴십 활동에 기여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현재 진행하는 인턴십 활동도 지자체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월할 수 있다.

인턴십 쪽으로 하고 있고 더욱 확대하려고 구상중입니다.(실무자4)

예전에는 인턴십과 멘토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멘토링은 보류상태이고 인턴십이 강화되고 있죠. 왜냐면 멘토링은 꾸준히 나와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실력이 되어야지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거라 성실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서 멘토링 사업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실무자6)

④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상자 인계 후 인턴십

학교 밖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우선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상자 명단을 받은 후 기관 방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턴십 과정이 끝난 후에는 예산상으로 더 연장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드물다.

곰드림선생님과 협의해서 대상자를 보내주면 그 대상자에게 무료지원프로그램이나 인턴십을 하게 되는 경우예요. 출석체크도 회원카드를 발급하면 입출입할 때 컴퓨터 프로그램에 찍혀서 한 달 단위로 저희가 정리해서 곰드림 선생님들에게 드리죠...(중략)...3개월이 지나면 예산 때문에 훈련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지는 않습니다.(실무자6)

⑤ 특별한 사후관리 없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활동을 마친 후 사후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 굳이 타기관에서는 하지 않는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진 않아요. 가끔 멘토를 해줬던 선생님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끔 문안인사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실무자4)

아이들이 먼저 연락하는 경우가 있죠. 5명 중에 2명과는 간간히 연락을 하고 중간에 그만둔 아이와는 짐수를 타서 연락을 따로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실무자5)

거의 연결고리가 없다고 보죠. 따로 연락하고 그러진 않으니깐. 대신 저희 쪽에 나오는 동안은 회원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죠.(실무자6)

(2) 기관 서비스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 후 사업성과 및 지속의향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해당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성과는 지역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과 인턴십 훈련 후 기관에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사업은 꾸준히 하고 싶어 했다.

① 지역관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은 후 좀 더 밝은 모습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다.

지역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처음와선 말도 별로 하지 않던 학생이었는데 나갈 때 쯤 되니 많이 밝아진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일하면서 생각이 좀더 바르게 자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제일 큰 성과가 아닐까요?(실무자4)

저도 꿈드림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꿈드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밖 청소년도 알게 되구요. 저희 기관에 와서 아이들 스스로는 어떤 발전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일 지켜보는 건 아니지만 가끔 기관에서 볼 때면 조금씩 성장하고 변하는 게 보여요. (실무자6)

이 친구들이 자라서 저희랑 같은 동료가 되고, 또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까지는 많은 시간투자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게 보여요. 물론 저희 기관 특성상 봉사하는 업무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요. 저희는 아이들을 보면 그 부분을 제일 큰 성과라고 봐요. 자라나는 친구들을 이렇게 바르게 인도하고 있다. 나중에 사회에 더 공헌할 것이다. 그런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정서적인 부분이지. (실무자7)

② 인턴십 활동 후 기업 내 정직원으로 채용

인턴십 훈련을 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은 청소년의 경우 정직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타기관의 실무자들은 더 많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한다고 한다.

정직원 채용이요. 자회 사회적 기업에서 인턴십 훈련으로 근무하던 청소년이 있었는데 참 성실했어요. 업무적인 부분에서도 주변사람들도 다 칭찬하구요. 업무분께서 직접 그 청소년을 정직원으로 채용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실무자5)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사업의 지속의향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지역연계 인턴십 훈련과정은 지속적으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현재 1년에 한 두명씩 3개월여 동안 시행 후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보완이 되어서 계속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공통적인 의견이다.

저는 1년 내내 계속 하고 싶습니다. 3개월보다는, 계속적으로 사업이 지속 되고 점점 사업이 퍼지면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실무자4)

네, 계속 해야죠. 저는 이걸 봉사라고 생각한 적이 없고 제 회사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요.(실무자5)

계속 인원이 있으면 계속 하면 좋죠.(실무자6)

저희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어요. 3개월이 지나고 계속 일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있어요. 한명 있었어요. 올해 18살인가? 여기서 하고 연장해서 할 수는 없어서 많이 아쉬웠어요.(실무자7)

(3) 기관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은 네 가지의 하위범주로 나타난다. 그것은 지역특성상 다양한 직무체험의 어려움, 교통 편의시설 부족, 직장 내 예절교육, 인턴십 훈련 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다.

① 지역특성상 다양한 직무체험의 어려움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다양한 진로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다양한 직업군이 있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에게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다양한 직무체험이 어렵다보니 전문성과 다양성부분이 한계점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대부분 자영업자들이고 3차 하청들이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해야하는 일들이 부족해요. 단순히 상업 공간 외에도 다양한 직무에 관련된 것 이여야 하는데 소규모의 기업은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죠. 청소년들의 트렌드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 뭘 배우고 싶다. 이런 거.. 이런 다양한 진로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요.(실무자5)

② 넓은 지역에 비해 교통이 불편함

지역특성상 어려움으로 인한 교통의 불편함은 인터뷰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종사자들도 한계점으로 지적한 바 있다.

지역이 넓은 것에 비해 교통이 불편한 게 있죠. 지하철이 하나 있기는 하는데 배차가 많지 않을뿐더러 학교가 서울처럼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분산되어있어서 거의 대부분 버스타고 다니는 시스템이죠. 걸어서 갈 수 있는 아파트단지 근처에 학교가 아니라 학원차를 타고 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는 시스템이죠.(실무자6)

③ 인턴십 활동 참여 청소년에게 직장예절 교육 필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인턴십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업무를 시킬 목적이 아니라 취업훈련 및 기술 등을 교육하고자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무단결근, 불성실,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턴십 훈련 과정에서 직장예절도 알려주지만 기본적인 직장내 규범 등을 사전에 교육받고 온다면 훨씬 수월한 인턴십 과정이 될 것이다.

인턴십을 하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근무시간에 출근을 안 하거나 지각을 하거나 태도가 불량해버리면 업체 측에서는 같이 일을 안 하느니만 못한 상황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인턴십 훈련이 잘 안맞아서 그럴 수도 있구요. 사전에 직장예절 등 기본교육 받고 온다면 더 좋을텐데요.(실무자5)

아이들은 주 12시간으로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는데 업주들에게는 베네핏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성교육을 비롯하여 예절교육 등 단계적인 계획들이 촘촘하게 계획되어야 할 것 같고...(중략)... 물론 저희는 교육 한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해 안되는 행동을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난감하죠.(실무자 5)

저희 입장에서선 봉사라기보다는 아이들이 3~4시간동안은 일을 하는 거니깐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죠. 사전교육을 기관에서 미리 받아오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도 했어요. 근무 중에 안내데스크 앞에 앉아서 핸드폰만 하고 있으니깐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자원봉사 조끼나 명찰을 만들고 되도록 사람들 있을 때면 핸드폰을 하지 말라는 교육도 시켰어요. 또 일하는 곳이 탈의실인 경우도 있었는데 탈의실이다 보니깐 학생이 옷 다 입고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조금 그러니깐 간단한 탈의실 청소나 락커 사용법이나 아이들 케어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니깐 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실무자6)

학교에서 오는 애들은 그래도 좀 체계적인데, 재네들은 왜 체계적이지 않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고 그런 괴리가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그런 상황에 대한 이해와 더욱 더 잘해야 한다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른들 입장에서선 선입견을 가지면.. 가르치기가 쉽지 않는데. 보통 많이 갖게 돼요. 그런 것들은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 아이들은 더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도 있어요.(실무자7)

④ 인턴십 후 체계적인 진로설계 지원 필요

인턴십 훈련과정 후 단기간(3개월) 아르바이트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처음에는 관심 있는 분야에서 업무를 배우면서 진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 등을 수집해 확장된 시야를 가지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훈련 과정이 끝난 후 더 이상 지속이 어렵고 또한 확장된 시각을 구체화시킬 방안도 없는 것이 아쉽다.

인턴십 훈련 후 진로까지에 대한 지원체계에 대해서 더 설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꽃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을 플라워샵에서 훈련받게 한 적이 있었어요. 업주께서 그 학생은 소질도 있다고 하셨구요. 그런데 몇 개월 실습 후에는 더 이상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럴 때는 관련 실무자들이 청소년들이 관심진로에 한발짝 다가가도록 도울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네요.(실무자5)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가 이야기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을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중앙정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세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대 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시설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 확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제일 중요한 건 정부의 관심이라고 하였다. 관심이 있으면 예산 확보를 비롯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어 있다고 하였다.

정부의 사회적인 관심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이들도 시민 중 하나고 국민 중 하나이니 아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사업을 뒷받침 해준다면 3~4년 후에는 좋은 사례도 많이 나와서 사업이 더 커져서 좀 더 많은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실무자4)

학교 밖 센터라고 하면 모난 돌 같고 사회 부적응 청소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회가 개개인의 다양성을 이야기 하면서 실제로 그 다양함을 위해서 학교 밖으로 나온 아이들에게는 손가락 질하는 사회라고 생각하고 이런 구조를 깰 수 있는 건 지금 이 아이들이라 생각해요. 이 친구들이 잘되어야 이런 인식이 점점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개개인이 이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긴 어렵잖아요. 정부에서 노력해 줘야죠. 아이들이 학교 밖을 선택한 것이 내 스스로 다양한 경험을 위해서 '인생에 대해 빨리 결정을 한 것이다.' 라는 인식을 보여줌으로써 인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성과라고 생각해요.(실무자5)

제일 좋은 건 위쪽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게 좋죠. 그분들은 잘 모를걸요? 저도 여기 있으면서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개념자체를 몰랐었으니깐. 학교 안 다니는 학생이라고 하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지 몰랐으니깐. 관심이죠. 위에 계신 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고 밀어주면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여기(학교 밖센터) 계신 실무자분들이 해놔야 도루묵이죠. (실무자6)

인식개선. 요새는 많이 하는 편인데. 버스도 보면 안에는 그런 거 많이 붙어있어요. 학교 밖 청소년 어찌구 저찌구 해서 연락처 주세요. 해서 써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밑에 홍보예산이라고 센터에다가 맡겨버리는데. 정부에서 같이 만들어주면 티브이에 한 번 나오면 효과가 훨씬 크거든요.(실무자7)

②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예산확대 필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인턴십 훈련은 다양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 타기관의 실무자들은 기관의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 면에서 든든한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특별히 힘든 건 없지만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 예산지원과 관심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예산이 부족하다보니 지속성이 떨어지고 어려워지더라고요. 노인복지 쪽으로는 많이 투자를 하지만 청소년지원은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실무자4)

정부에 계신 분들 중 한분이라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아시거나 관심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더 들여다보고 이 시에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 한번 볼 텐데 그런 쪽으로는 관심이 없을 걸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교육의 한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이라고 하면 학교 내의 교육에만 신경을 쓰시죠. 학교 밖 교육에는 거의 신경을 안 쓰시기 때문에 학교 밖 교육도 계속 브리핑이 될 필요가 있기는 해요.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실히 필요하죠.(실무자6)

③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시설의 확충

지역 내에 학교 밖 청소년 관련시설이 부족하다.

꿈드림센터라고 해서 지금 **에는 이곳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 면적으로 보면 지역이 커요. 아파트도 많아져서 예전에 비하면 학교도 조금 많아지고 했는데 몇 개 학교가 집합되어져 있는 곳에 이런 청소년 관련시설이 하나씩이라도 조금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밀집도에 비례해서 기관을 더 늘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실무자6)

(2) 기초자치단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발전방향에 대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네 가지 하위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직접적 연결을 해 줄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에서 지역의 민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필요하다. 셋째, 현재하고 있는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 내에서, 그리고 지역과 지역과의 관련기관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①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연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지역 내에서 자생하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부족한 현실이다. 지자체가 직접 연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다.

센터가 조금 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자생 가능한 구조로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지역의 공공기관과 연결해주는 게 좋아요. 지자체가 직접 움직이는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연결해주고 센터에서 요청을 하는 것들을 잘 지원해주고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인 호흡을 하려고 준비되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지원일 것 같아요.(실무자5)

시청에 있는 평생학습교육과인가? 그렇게 해서 청소년 관련 되어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체적으로 시청에서 해야 잘 움직여져요. 저희도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다 보니 참여하게 된 부분도 크거든요.(실무자6)

② 지자체에서 지역 내 민간기관에게 지원요청

학교 밖 지원센터 자체적으로 지역 내 민간기관에게 협조를 구하고 연계를 시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기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인식이 긍정적이지 못한 면이 있어서일 수 있다. 지역 내 활동이다 보니 지자체에서 함께 움직여 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는 훨씬 수월하게 민간 기관과 연계가 가능할 것이다.

지자체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직업과 관련된 민간기관과 연결 해준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실무자4)

공공기업보다는 오히려 일반 상업시설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사회공헌적 성격을 띠게 되면 '부족한 아이들을 우리가 품어준다.'라는 인식을 할 수 있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청소년을 잠재력이 있는 개인으로 보느냐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보느냐는 아주 중요할 것 같고 공공기업에서 매칭이 되어버리면 청소년들이 더욱

움츠러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편견이 없는 업체를 잘 찾아서 민간 사업장에 연결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실무자5)

이제 협조조. 같이. 협조로 돼서 시에서 먼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 '이것에 대한 것을 같이 협조해줘라.' 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줘서 지역 민간기관과 시와 연계되어있는 곳이라는 것을 증빙해주면 되죠. 꿈드림에다 다 맡겨버리는 건 소용이 없죠. 꿈드림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시장이 요청한다고 하는데 시와 연계 되었다고 명패도 박아준다는데 안한다는 데가 없거든요. 그냥 그 정도면 충분히 기관 발굴에는 문제가 없어질 테고.(실무자7)

③ 인턴십 활동 시 예산 확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인턴십 활동을 하는 동안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싶어도 타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아예 없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근무수당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인턴십 기간 동안 식비 등의 지원은 어렵다.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이죠. 청소년들이 배우고 싶어 하는 게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훈련이 잘 못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었어요.(실무자4)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사 같은 개념이라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게 저희 쪽뿐만이 아니라 그쪽 기관에도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식비를 포함해서 올려주는 게 솔직히 돈이잖아요. 만족감이라는 게 아이들도 일한만큼 버는 게 만족감이 있고 어딜 가나 생활임금수준이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올려주었으면 하죠.(실무자6)

식사까지 제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못하고 있어서 아쉬워요. 근무시간이 하루에 3시간이나 4시간 정도 되거든요. 주 3일에서 4일 정도니깐 점심시간 빼고 나서니깐 상관은 없긴 없는데 예전에는 15시간 했거든요. 3일씩 5시간해서 15시간을 했는데 밥이라도 조금 사줄 수 있는 예산이나 경비가 있었으면 했는데 조금 아쉽죠. 저희 쪽에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한 달에 한번 근무한 날짜랑 근무시간만 꿈드림센터에 작성해서 보내면 그 예산이 학생에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얼마씩인지는 잘 모르고 있죠.(실무자7)

④ 지역 내 관련기관의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

학교 밖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은 학교 밖 관련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다고. 지금은 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연계해주는 청소년들을 인턴십 훈련시키고 있는 정도이고 관내 어느 기관으로 청소년들이 파견되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다. 앞으로 지자체가 우선이 되어서 지역 내 연계 기관과 인턴십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간담회 등도 개최하며 함께 협조하는 자리가 자주 생긴다면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지원체계를 조금 더 촘촘히 만들어서 지역 내에서 연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면 각 지역간 관련기관의 사례공유 및 워크숍 같은 것도 활발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례가 있다면 모델링을 해보자 하는 자리들을 센터 간에 만들고 연계업체들도 많이 늘려갈 수 있게 된다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주변지역의 업체들까지도 청소년들이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5)

○———— V. 결론

- 1. 요약
-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 3.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1. 요약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본 연구를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형) 세 곳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지역의 현황,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특성 및 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기관이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방향 및 성공요인, 지자체 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1) 기관 및 지역 현황

우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현황을 살펴보면 조직 부분에서는 기존 여가부 지침 외에 인력 및 근속년수 확보가 되어있다. 공간현황은 타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프로그램 활동 시 어려움이 있다. 예산부분에서 기관마다 공통적으로 중앙부처 외 지자체 및 사업 예산의 확보가 원활하였다. 임금은 타기관(상담복지센터)과 동일하게 실무진의 급여수준을 맞추고 있는 편이었다.

기관별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은 우선 세 기관 모두 타 지역보다 학교 밖 청소년 발생비율이 높았다. 공업지역 및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가 증가하였고 이는 학교

밖 청소년 인구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지역이 넓은 편이지만 규모에 비해 청소년 시설이 많이 부족했으며 교통 편의시설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지역은 청소년이 선택하는 취업관련 전문기술학원이 부족하다.

(2) 기관이용 청소년의 참여도, 특성, 욕구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마다 실제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꾸준한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방문하는 청소년들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소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관을 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특성은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는데 공업지구와 가까운 지역은 경제적 빈곤과 위기상황 노출로 인한 비행의 증가가 나타났고 도농지역의 경우 심리적 우울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제일 우선시 되는 욕구는 검정고시 합격인 것으로 나타났다.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중앙부처 권고 주요서비스 이외에 지역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지역연계를 통한 자립지원 및 문화 활동 서비스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중 나타나는 필요한 지원 및 애로사항은 학교 밖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 지원, 대입을 위한 교육비 지원, 실무인력의 확충(정서지원, 활동지원), 작업 공간 확보의 어려움, 청소년들 흥미와 욕구반영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반확립 모델 및 성공요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나형센터의 모델은 세 가지로 나타났다. 첫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둘째,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셋째,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이다. 이런 모델이 되기까지 각 기관의 성공요인으로선 실무자들의 근무조건 안정화로 인하여 이직률도 줄고 이로 인해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이 길러진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무자의 책임감 및 봉사정신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 역시 성공요인이 할 수 있다. 또한 꾸준한 홍보와 사업설명회 등으로 인해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서비스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정책의지 및 네트워크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세 기관 공통적으로 정부나 광역시도의 지원 외에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하였다. 기관별 지자체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진로 작업장 예산지원, 미취학 및 초등학생 학교 밖 아이들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 자립사업 지원 등으로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기관마다 지자체와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 있었으며 지자체에서 청소년 관련사업 등에 대한 관심으로 예산확보가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으로 구분하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실무자들의 처우개선(인력확보 및 급여수준 향상), 정서적으로 고위험군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상담 전문 인력 필요,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독립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예산 확장을 이야기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비지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비 지원이다. 교육비와 자립비는 광역자치단체나 도 관할 입장에서 가장 지원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더 많은 진로체험이 가능한 진로작업장 확장과, 지자체와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기 위한 담당공무원의 이해와 협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자체 직영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교육청에 바라는 지원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수 시에도 학력취득 인정, 학교 밖 지원센터가 학교 내의 학업중단 예방프로그램에 투입 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학업중단숙려제 청소년 리스트의 빠른 전달, 그리고 공교육의 학업위주 교육체제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였다.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학교 밖 청소년이 인턴십 활동을 하고있는 연계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지원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있는 지역기관의 사업 유형, 기관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특성, 학교 밖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1) 지역 연계기관의 사업유형 및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지역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기관의 사업 유형은 지자체의 관리를 받는 공공기관(시설관리공단, 지자체문화센터)과 지자체와 연관

되어 사업을 하는 기관(사회적기업, 요양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는 인턴십 훈련과정이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연계과정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직접 기관으로 찾아온 경우,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와 연계하여 알게 된 경우였다.

(2) 기관이용 청소년의 연계경로, 연령대, 욕구, 특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통해서만 기관을 이용하고 있었다.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대는 주로 17~22세의 청소년들이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기관에서 인턴십 훈련을 받으며 다양한 욕구와 폭넓은 관심분야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주변 환경으로 인해 위기상황에 놓인 특성이 보이기도 하고, 내향적인 성격과 매사에 무기력함을 보이는 특성도 나타난다.

(3)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욕구에 맞춰 적절한 수준의 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해에 2~3명 정도의 학교 밖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다. 운영하는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사업으로 인턴십 활동을 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인계받은 후 기관방침에 따라 훈련을 받게 하고 있다. 인턴십 활동 종료 후 사후관리는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업성과는 지역관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조금이라도 기여한 것과 인턴십 훈련

후 기관에 정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연계사업은 꾸준히 하고 싶어 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 연계기관에서 시행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운영 후 개선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지역 특성상 다양한 직무체험의 어려움, 교통 편의시설 부족, 직장 내 예절교육, 인턴십 훈련 후 학교 밖 청소년들의 체계적인 진로설계를 위한 지원이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방향

학교 밖 청소년 지원체계 발전 방향은 중앙정부, 기초자치단체 구분하여 정책 및 지원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중앙정부에 바라는 정책 및 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긍정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확대, 지역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시설의 확충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지역연계기관 실무자들이 기초자치단체에 바라는 지원은 지자체의 입장에서 지자체 연계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직접적 연결과 더불어 지역의 민간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지원을 해주라는 직접적인 요청도 필요하다. 또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턴십 활동에 대한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 지역 내의 사례 및 업무협조 그리고 지역과 지역과의 관련기관 사례공유 및 업무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2.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방향

1)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

1차 년도 연구에서 지역사회 유형별 지원모델 개발 방향이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역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2차 년도 연구결과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이 도출되었다. 1차 년도에서의 지역사회 유형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이었다. 2차 년도에서는 중소도시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같은 중소도시라고 해도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별화된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2차 년도에서 연구한 지역사회는 나형으로 구분되는데 공업지역·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수의 확대 여부, 이에 따른 청소년 인구 및 비율, 학교 밖 청소년 발생 비율, 지역 청소년 시설 수 등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전용공간 확보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공용으로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인 상담실, 교육실 및 활동실, 상담대기실 및 휴게실에 대한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공용 공간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이 상이하여 청소년 간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서비스의 특성(심리상담, 학습지원, 자립지원 등)을 고려한 별도의 전용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타 기관의 공간을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타 기관 이용자들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색해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시설이 많지 않은 중소도시의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이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대도시에서는 사람이 많고 개인적인 성향이 상대적으로 강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적어진다. 부정적인 시선을 덜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에 갈 시간에 청소년시설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보내는 좋지 않은 시선을 느낄 가능성이 많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의 활동을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포함한 관련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오히려 대도시보다 중소도시에서는 독립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필요하다.

3) 모든 청소년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

중소도시에 위치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17세-22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기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이다.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후기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전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후기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이라는 것은 추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사업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확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공 여부는 기관의 인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수한 전문 인력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구대상이 된 3곳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실무자의 근속년수가 오래되었는데

그것은 인력에 대한 지원이 여성가족부 지침 이외에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이다. 임금도 타기관과 동일하게 맞춰져 있고 고용의 안정성도 확보가 되어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이다. 현재 이것은 지자체의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결국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원활하게 움직이기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와 관련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있어서 고위험군 상담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 도농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곳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심리적 우울을 많이 경험한다고 한다. 학교를 그만두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보다 심리적 요인이라고 한다. 심리적 요인으로 학교를 그만 둔 청소년의 경우 일반적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가 이들을 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상담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전문상담인력이 있지만 이들의 1차 업무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온 청소년보다 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온 청소년이어서 다소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기능 확장

대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 달리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 시설 자체가 적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대도시보다 다양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담당해야 할 기능 중 하나는 이곳이 학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대안학교의 기능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현재와 같은 규모이면 불가능할 것이다. 독립적인 공간이 필요하고 인적 자원도 지금보다 다양하게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 내용은 추후 논의된다 하더라도 중소도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보다 훨씬 다양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 밖 학교로서의 기능 확장이 당장 어려운 일이고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학력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학력을 취득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실질적으로 많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검정고시가 가장 큰 사업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를 위해 하는 것은 검정고시를 취득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런 경우, 차라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다니면서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6) 예산 확보

모든 청소년 사업이 그렇듯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일하는 전문 인력의 확보 측면에서도 예산은 중요하다. 현재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만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소도시형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모델을 보여주는 곳의 경우, 중앙정부 이외에 지자체에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연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이전에 중앙정부나 민간기업의 사업을 유치하여 기반을 다졌다. 사업유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야 하는 일이 아니지만 지역사회 연계나 예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사업초기에 적극적으로 하기도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중에는 취업이나 진로 등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 많이 있다. 대도시와 달리 중소도시에는 직업체험이나 인턴십의 기회가 적다. 학교 밖 청소년이 관심이 있는 직종의 관련자를 초청하여 특강을 들으려 해도 대도시보다 어렵고 직업체험은 더더욱 어렵다. 이런 경우에도 예산이 지원된다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머물면서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

7) 지자체와의 협력적인 관계

중소도시형 지역사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중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자체와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책임 있고 지속적으로 만날 전문가가 필요한데 지침상의 대우와 조건으로는 이것이 어렵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지자체의 지원으로 고용의 안정성과 임금을 보장받게 되어 실무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연계와 관련해서도 어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을 유치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만으로 사업초기 기반을 잡기도 하였다.

8)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 구축

중소도시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이 충분하지 않다. 이것은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대도시를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거주지의 이동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아직 청소년이라는

점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면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대도시로 자신의 욕구를 위하여 떠난다는 것은 다른 위험을 내포하는 일이다. 중소도시의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충분히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도시는 대도시보다 아르바이트의 기회도 적고 직업체험이나 인턴십 종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욕구를 위하여 지역에서 어떻게 인적 및 물적 자원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9)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의 역량 향상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은 청소년의 흥미와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개발이 어렵다고 하였다. 물론 이것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들만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요즘 청소년을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대부분 공감하는 바일 것이다. 중소도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실무자들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매번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가지고 있다. 변화하는 트렌드를 쫓아가려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실무자에게 필요한 것은 연수프로그램과 같이 자신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 창의융합 프로그램이 최근 청소년 분야에 확산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학교 밖 청소년에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중소도시규모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모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3가지 유형이 발굴되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에서 운영 초기단계에서 사업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들에 지원하여 사업수행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지역기관과의 연계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서 성공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이 하게 된 유형이다. 연구대상이 된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중, 2곳이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그러나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유형은 아니다. 그것은 이 유형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초기, 지역사회의 연계가 많지 않고 지자체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추후 이 유형은 정부 및 민간사업을 하면서 구축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확산됨에 따라 독립적으로 지역사회 연계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 지역기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이것이 활성화될수록 실무진의 업무가 많아지고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인력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구축된 시점에서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는 학교 밖 청소년센터의 입장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이 된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사업을 시작할 때, 그 지역의 기반이 없어서 연계가 어렵거나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없어도 시작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점차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입지를 다질 수 있고 네트워크도 생기게 된다. 만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인력이 충분히 지원된다면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구할 유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이 유형이었던 2개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이를 기반으로 기관자립형으로 발전한 상황이다.

2)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은 운영 초기부터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 등에는 많이 지원하지 않고 주로 도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역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하게 된 유형이다. 이 유형이 가능했던 것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좋고,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이 된 3곳 중 1곳이 이 유형에 해당된다.

이 유형의 경우, 지역연계가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처럼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을 할 필요가 적었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는 있으나 도 차원의 청소년 관련 사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지역사회 연계의 기회가 달려있다.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은 기관의 의지에 따라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이것은 지역사회 연계의 기회로 연결이 된다. 그러나 도 차원의 청소년 관련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의지로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지역사회 연계의 기회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은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단계는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이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초기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가능하다. 2단계는 1단계가 어느 정도 성공적이 될 경우,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형성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면서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사업은 지역연계와 더불어 더욱 활성화 된다.

이 유형은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과 비교해 볼 때, 사업초기의 어려움은 경험했을 가능성이 많고 업무 부담도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보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사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자체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은 경우와 같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자체적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공적으로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

4)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의 비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의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을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V-1]과 같다.



그림 V-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또한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의 3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 모델을 특징, 장점, 단점의 측면에서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의 [표 V-1]과 같다.

표 V-1 학교 밖 청소년 중소도시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별 특징과 장·단점

구분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네트워크 확산형
특징	주로 학교 밖 청소년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 초기단계에서 기관의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짐	지자체의 지원이 있어서 지역 사회 사업시행 과정에서 지역 사회 전문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짐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로 사업이 안정된 이후 지역 네트워크의 확산 및 활성화를 도모
장점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하고 징검다리의 역할을 함	처음부터 학교 밖 청소년센터 본연의 기능 이외에 정부나 민간기업의 공모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없음	지역사회 연계가 부족한 상황이나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가능, 추후에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단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큼, 인력 문제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의지와 관련이 적음	사업 초기에 실무자의 업무 부담이 클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기관장과 실무자와의 면접에 근거하여 성공적인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을 3개 제시하였다. 그것은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형, 지역 네트워크 발굴을 통한 기관자립형, 정부 및 민간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 연계기관 확산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접 자료만을 근거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을 고려했으나 추후에는 지역특성까지 고려한 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같은 중소도시라고 해도 청소년인구의 수가 차이가 있고(2016년 12월 기준으로 ○○시의 경우, 345,947명인데 비해, □□시의 경우 835,590명), 학교 밖 청소년 수, 청소년 시설 수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보다 정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유형이 도출될 수 있다.

○———— 참고문헌

참고문헌

- 여성가족부 (2019). 2019년 청소년사업 안내.
- 조아미, 임정아, 이지연, 김남은 (2018).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세종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은주 (2014). 통치와 잉여 : 학교 밖 청소년을 둘러싼 질문들.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14(12), 331-332.
- 시 인구통계 (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 △△시 인구통계 (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 시 인구통계 (2017.12월 기준) (2019.10.17. 인출)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 (2019.08.01. 인출)



부록

- 1.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종사자)
-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부록

1.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종사자)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1.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 지역자원 특성 등을 분석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모델 개발에 있습니다.
- 연구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정보는 연구 이외의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습니다.
- 수집된 정보는 연구 책임자에 의해 관리되며, 지정된 연구자 외 타인으로부터 보안을 유지할 것입니다.
- 연구 참여자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합니다.
- 아래 내용을 읽고 동의하시면 서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 참여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하며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합니다.
 2. 연구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을 유지하며 학술적 용도로만 사용합니다.
 3. 인터뷰 시 사전 동의 후 녹음하며 녹음 자료는 연구자만 청취합니다.
 4. 인터뷰 자료는 연구종료 후 6개월 이내 폐기처분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데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연구자 : (서명) 연구 참여자 : (서명)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명지대학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연구 참여 및 사례비 지급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여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상세히 읽어보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목적: 연구참여 및 사례비 지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개인정보 수집 항목: 성명, 소속,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음성녹취, 소장 사진
- 개인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연구종료 후 6개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종사자)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기관 종사자)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 남 ☐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I. 기관현황

1. 귀 기관의 예산확보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보조금수입(국비/지방비/구비)
 - 기관 내 수익(수익자부담 수업료 등..)
 - 후원금
2. 귀 기관의 공간 현황은 어떤가요?
 - 공간소유여부(자가/임대)
 - 기관독립 전용공간
 - 타 기관 내 전용공간
 - 타 기관과 공용공간
3. 귀 기관의 조직 현황은 어떤가요?
 - 조직현황
 - 상근직원(정규직/비정규직)
4. 귀 기관에 소속된 직원의 임금현황은 어떤가요?

II. 해당 기관 이용 청소년의 특성

1. 귀 기관의 학교 밖 청소년 현황은 어떤가요?
 - 현재 등록 인원
 - 실제 이용 인원
 - 등록 및 실제 이용인원의 연령대
 - 학업 중단 시기
2.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게 되나요?

3.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은 어떠한가요?
4.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주요한 욕구는 무엇인가요?

III. 해당 기관 서비스 운영현황

1. 귀 기관은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교육자립
 - 생활자립
 - 경제자립
2.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 꿈드림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 지역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원?
3.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4.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5. 귀 기관의 성공 모델은 무엇인가요?
예) 정부부처투자유치형, 지역네트워크확산형, 기관자립특화사업형
6. 귀 기관이 성공모델이 되기까지의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IV. 지역 및 유관기관 현황, 지역네트워크 및 정책의지 현황

1. ○○시의 지역특성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 지역 학교 밖 청소년 발생인원 수
 - 지역 주변 환경 특징
2. ○○시에서 청소년이 이용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관은 어느 정도 일까요?
 -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3. ○○시의 특성에 따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지역 기관들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있나요? 시장님, 또는 구청장님, 또는 담당자와 함께 모여 협의를 하나요? 이를 위한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결성되어 운영되고 있나요?
5. 학교 밖 청소년문제에 대한 시장(구청장) 등 정책 의지는 어떠하며 의회는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나요? 조례제정, 예산 문제 등

6. 실제 정부나 광역시도 지원 외 해당 지자체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7.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8. 이를 위해 다음 각 주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 중앙정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 교육청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3.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 참여자 정보 및 인터뷰 내용(연계기관 실무자) ◆

인터뷰 일시		성 명	
근무 기관		성 별	☐ 남 ☐ 여
근무 기간		생년 / 나이	

1. 귀 기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2.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3. ○○시의 꿈드림 기관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4. 귀 기관에 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은 주로 어디를 통해 오게 되나요?
5. 귀 기관을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이용현황은 어떤가요?
 - 이용인원
 - 연령
 - 성별
 - 욕구(관심분야)
 - 특성
6. 귀 기관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7. 꿈드림과 연계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8. 어떤 방법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나요?
9.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10.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서비스 제공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애로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11. 학교 밖 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는 무엇인가요?
12.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13.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시의 어떤 기관과의 네트워크가 더 필요할까요?
14. ○○시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15. ○○시의 특성에 따른 한계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6. 향후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의 발전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성실히 응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기관고유과제

- 19-R01 청소년 '일 경험' 제도 운영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Ⅱ : 대학교 실습학기제를 중심으로 / 김승경 · 최정원 · 강정환
- 19-R0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1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전년도 공개데이터 심층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2-2 청년 사회 · 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Ⅳ - 기초분석보고서 / 김형주 · 연보라 · 유설희
- 19-R03 국가 미래인적자원으로서 재외동포청소년 성장과 지원방안 연구Ⅱ / 김경준 · 김정숙
- 19-R04 청소년기관의 진로체험 지원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강경균 · 성윤숙 · 김승보 · 장현진
- 19-R05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업사회공헌 사업과의 협업 추진 방안 연구 / 임지연 · 황세영 · 김도영
- 19-R06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 방안 / 김지경 · 변금선 ·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 19-R07 정보기술을 활용한 위기청소년 사회서비스 확충 방안 / 김지연 · 이경상 · 노법래
- 19-R08 남북한 청소년 교류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연구 / 배상률 · 이정민
- 19-R09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 / 김영한 · 서정아 · 권일남
- 19-R10 청소년지도자 양성시스템 재구축 방안Ⅰ : 청소년 활동분야 중심으로 / 최창욱 · 좌동훈 · 남화성 · 박정배
- 19-R1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및 조성사업 연구Ⅶ / 오해섭 · 문호영 · 염유식
- 19-R1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총괄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이민희 · 김진호
- 19-R12-1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심화분석보고서 / 강지영
- 19-R12-2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아동 · 청소년 인권실태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김영지 · 김희진
- 19-R13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청소년 성장지원정책 추진체계 구축방안 연구Ⅰ / 최인재 · 이윤주 · 송민경 · 조윤정
- 19-R14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X - 사업보고서 / 하형석 · 김성은 · 이용해
- 19-R14-1 한국 아동 · 청소년패널조사X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성은 · 김준엽
- 19-R1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총괄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 19-R15-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 - 기초분석보고서 / 양계민 · 장윤선 · 정윤미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질적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 장근영·윤철경·서고운·이동훈 (자체번호 19-R16)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59-0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 조아미·임정아·김남은 (자체번호 19-R16-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1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 / 김기현·유민상·김창환·정지운 (자체번호 19-R1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0-02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I : 학교 졸업예정자-해외사례조사 / 김기현·유민상(자체번호 19-R17-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임희진·백혜정·김동식 (자체번호 19-R18)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2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학생 청소년의 건강불평등 실태 분석 / 김동진·정연·채수미 (자체번호 19-R18-1)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19-61-03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 기초분석보고서 / 임희진·백혜정 (자체번호 19-R18-2)

연구개발직립금

- 19-R52 청소년정책 재구조화 방안연구 / 김기현·최정원·변금선·이종원·이민정·정지희
- 19-R2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모상현
- 19-R21-1 청소년 참여 연구사업 운영을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 증진방안 연구 : 10대 연구소 연구사업 운영보고 / 모상현·함세정

수시과제

- 19-R53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연령조정 방안연구 / 이정민
- 19-R54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형주·이종원
- 19-R55 학교 밖 청소년 추정치 추계방안 연구 / 하형석·이종원·이정민
- 19-R56 2030 혁신리더 양성개발 및 평가 / 최정원·김현철·문호영·이윤주·박지숙·정은진
- 19-R57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역기관 연계 종합지원모델 개발 / 연보라·이윤주·김현철

수탁과제

- 19-R19 포용사회 구현을 위한 이주배경아동·청소년 성장기회격차 해소방안연구 : 통계구축방안을 중심으로 / 양계민·김지연·장윤선
- 19-R20 한국 아동·청소년 삶의 질 지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지표 DB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유민상·이용해
- 19-R22 청소년 비즈쿨 지원사업 교육운영모형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23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초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4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중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5 학교폭력 예방 또래활동 프로그램(고등학교) / 성윤숙·이혜정
- 19-R26 201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성윤숙·김현수
- 19-R27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 매뉴얼 / 성윤숙·장안서
- 19-R28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심층 프로그램 / 성윤숙·서정아·문호영·장안서
- 19-R29 2018 개정 학부도 어울림 프로그램 :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24종) / 성윤숙·김현수
- 19-R30 2015 개정교육과정을 반영한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교과 연계 프로그램 : 중학교 국어·도덕·사회 및 고등학교 국어·통합사회(5종) / 성윤숙·황세영·김성은·김현수
- 19-R3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중등용) 및 프로그램(5종) / 황세영·한지형
- 19-R32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지연·서고운·김태완
- 19-R33 2019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김경준·김영지·임지연
- 19-R34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윤철경·최인재·김승경·김성은
- 19-R35 고양시 청소년재단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 / 김영한
- 19-R36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국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6-1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분석 연구 -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56차 심의자료 및 권고사항 (영문) / 김영지·이윤주·유선희
- 19-R37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개선방안연구 / 양계민·장윤선
- 19-R3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연구용역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8-1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정책 중장기발전 계획 / 최창욱·좌동훈·문호영·남화성
- 19-R39 소년 범죄피해자 인권보호 실태분석 및 제고방안 / 김지연·정소연·김혁·이경상
- 19-R40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김교희
- 19-R41 청소년 보호법 체계 개선 방안 연구 / 김지경·장근영·고은아
- 19-R42 2019년 학교 시민교육 정책 네트워크 운영 / 배상률·장근영·이정민

- 19-R43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3-1 천안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 요약보고서 - 천안시 청소년재단 기본구상 및 중장기계획 - / 최창욱 · 좌동훈 · 문호영 · 남화성 · 노자은
- 19-R44 중국 청소년의 한류 인식 및 수용 실태 연구 / 배상률 · 문수정 · 장수
- 19-R45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019 / 김희진 · 임희진 · 하형석 · 정윤미
- 19-R46 보호종로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사업 평가지표 개발 연구 / 김지연 · 백해정 · 류정희 · 이상정
- 19-R47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방안 연구 / 강경균
- 19-R48 201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연구 / 서정아 · 조아미
- 19-R49 지역사회 기반 직업계고 운영 활성화 방안 / 강경균
- 19-R50 고등교육 고비용부담 및 양극화 현상 진단과 대안 / 김기현 · 김형주
- 19-R51 청년정책 체계성 강화 연구 / 변금선 · 김기현 · 하형석 · 이용해
- 19-R58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개발(초등용) 및 프로그램(2종) / 황세영 · 김성은 · 김현수
- 19-R59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실태조사 연구 / 오해섭 · 박지영 · 이지혜 · 임하린
- 19-R60 홈스쿨링 도입 방안 연구 / 이종태 · 하태욱 · 차상진

세미나 및 워크숍 자료집

- 19-S01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 모듈 시범적용 결과 발표회 및 활용방안 워크숍 (1.11)
- 19-S02 2019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워크숍(1.24)
- 19-S03 학교폭력예방교육 운영학교 우수사례집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1.31)
- 19-S04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초등학교)(2.12~13)
- 19-S05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중학교)(2.14~15)
- 19-S06 2019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1차-고등학교)(2.19~20)
- 19-S07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실(꿈지락) 프로그램 워크숍 자료집(4.15~16)
- 19-S08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워크숍(2.22)
- 19-S09 제13회 청소년정책포럼(3.6)
- 19-S10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초등학교(3.27~4.10)
- 19-S1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중학교(3.29~4.17)
- 19-S12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운영학교 담당자 연수(2차) 고등학교(3.29~4.17)
- 19-S13 제14회 청소년정책포럼(4.29)
- 19-S14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박람회 토크콘서트 자료집(5.24)

- 19-S15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관리자 협의회(6.4)
- 19-S16 2019년 대안학교(각종학교 및 특성화 중·고교) 담당자 연수(6.5)
- 19-S17 제20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6.10)
- 19-S18 제15회 청소년정책포럼(6.14)
- 19-S19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컨퍼런스(6.18)
- 19-S20 제16회 청소년정책포럼(7.26)
- 19-S21 제17회 청소년정책포럼(8.28)
- 19-S22 제21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8.14)
- 19-S23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당 워크숍(8.13~14)
- 19-S24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자 연수(8.22)
- 19-S25 2019년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담당자 연수(8.23)
- 19-S26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 워크숍(8.26)
- 19-S27 제18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지도사 양성체계 및 처우개선 방안 제1차 재구조화 포럼(9.19)
- 19-S28 제22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학업중단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10.25)
- 19-S29 제19회 청소년정책포럼 : 미래지향적 청소년관련 법 정비 방안(9.26)
- 19-S30 제20회 청소년정책포럼(9.27)
- 19-S31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9.26)
- 19-S32 제22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잠재프로파일 분석의 이론과 실제)(9.27)
- 19-S33 제23회 청소년정책포럼 :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성장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 자원 연계방안(11.7)
- 19-S34 제24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 주도적 참여기반 확대 및 활성화 방안(11.19)
- 19-S35 제23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정책 협력 추진 방안(11.12)
- 19-S36 제8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11.15)
- 19-S37 제21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 전국청소년 지표조사 결과 발표 및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10.1)
- 19-S38 제25회 청소년정책포럼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의 협업추진 방안 (12.6)
- 19-S39 제24차 NYPI 직원 역량강화 콜로키움 : 정책평가를 위한 이중차분법의 활용 : 이중 차분법의 이해와 한국아동청소년패널 데이터 이용 사례(12.2)
- 19-S40 제26회 청소년정책포럼 : 한국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현황 및 전망(12.12)
- 19-S41 제27회 청소년정책포럼 : 2019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발전방안 포럼- 해외사례를 통한 국내 학교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12.12)
- 19-S42 고교학점제와 지역사회 청소년 체험활동 자원의 연계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12.16)
- 19-S43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교육청 공동 세미나 :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실태와 정책 진단, 그리고 미래(10.8)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1호(통권 제9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2호(통권 제9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9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0권 제4호(통권 제95호)

기타 발간물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3호 :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4호 : 제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청소년활동정책 전략 연구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5호 :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6호 : 위기청소년 교육적 선도제도 실효성 제고방안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7호 : 청소년을 위한 NPO-기업 사회공헌사업(CSR) 간
협업추진을 위한 '협업지침'과 '중추지원조직 기능·
추진사항'개발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118호 : 미래지향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정비 방안

NYPI Bluenote 통계 46호 : 청소년활동 참여 실태조사 연구Ⅴ

NYPI Bluenote 통계 47호 :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I :
청년 니트(NEET)

NYPI Bluenote 통계 48호 : 부모 특성과 아동·청소년 발달의 관계

연구보고 19-R16-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 II :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인 쇄 2019년 12월 23일

발 행 2019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송 병 국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신진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8-89-7816-917-2



연구보고 19-R16-1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연구II: 지역사회 지원모델 개발을 위한 중소도시 지역 질적 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www.nypi.re.kr

